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GRIT 모의고사]

2020
GRIT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김상훈 국어연구소

문항분석

01

정답 해설

답 ⑤

4문단의 '전자책이 등장한지 10년 정도'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시간의 흐름은 제시되고 있지만, 전자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그 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정기구독을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상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 전자책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의 '2017년 우리나라의 연간독서량은 성인 8.3권, 고등학생은 8.8권'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1문단의 '보통 어떤 방식으로 들으시나요? (대답을 듣고)'와 2문단의 '먼저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반응을 살피고)'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전자책으로 인해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라는 부분에서 '전자책 서비스로 인한 종이책의 소멸 가능성'이라는 예상되는 지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자책과 종이책은 보완관계에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반박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2

정답 해설

답 ⑤

발표를 들은 학생은 '전자책과 종이책의 보완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발표자가 고려하지 못한 내용을 지적하여 발표자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는 전자책의 등장 자체가 종이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 '전자책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종이책 시장은 위축되었'다는 반박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발표 내용 중 독서량을 제시하는 수치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으로, 전자책과 종이책 간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지적하는 <보기>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이다.
- ③ '종이책의 정기결제 서비스의 유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싶은 바를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보기>의 발표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이다.
- ④ ③과 마찬가지로 종이책 없이 전자책으로만 출판되는 경우에 대해 자신이 알고 싶은 바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보기>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 ② '제도적 차원에서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견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기>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03

정답 해설

답 ③

㉔ '국내 연간 독서량을 해외와 비교하여 심각성 강조'에 대해 2문단의 '2017년 우리나라의 연간독서량은 성인 8.3권, 고등학생은 8.8권'에서 국내 연간 독서량이 제시되어 있지만, 해외의 연간 독서량 수치가 제시되고 독서량 간의 비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언급해 흥미 유발'은 1문단의 '여러분, 음악 듣는 것 좋아하시죠?', '대부분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계시네요.'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①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화제 제시'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도 정기구독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지요'에서 영상물의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런데 혹시 책도 이렇게 디지털 정기구독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에서 청중의 지식을 바탕으로 화제인 '전자책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② '전자책과 종이책은 보완관계임을 제시'는 4문단에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로 먼저 책을 접하고 이후에 동일한 책을 종이책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근거로 '전자책과 종이책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②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가능성 언급'은 마지막 문단에서 '그러나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정답 해설

답 ②

찬성1은 상대방의 지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공유 주방 서비스는 단순히 주방이라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에서 공유 주방 서비스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미를 확장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찬성1은 입론에서 '2016년 우리나라의 외식업 폐업률은 23.8%로, 산업 전체 평균 폐업률 13.2%의 약 2배에 달합니다.'에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높은 폐업률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입론에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37조 4항'이라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문항분석

- ④ 반대2는 찬성1의 입론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공유 주방이 외식업계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정비의 감소가 반드시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에서 상대측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 고정비 감소가 가져오는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찬성1은 반대1의 입론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넓은 규제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 발생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케케묵은 사고 아닐까요?'에서 상대측이 주장한 규제 관련 내용이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이라는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05

정답 해설

답 ②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주장한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계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반대 신문 과정에서, 공유 주방 서비스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면 외식업의 창업이 지나치게 쉬워져 오히려 외식업에 쉽게 도전했다가 폐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찬성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가 창업만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업 관련 교육 또한 제공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반대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찬성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별도의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양측 모두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식품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급히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찬성 측이 아닌 반대 측이다. 찬성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를 규제하는 식품 위생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토론에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신사업'으로 제시되는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 반대 측은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론할 때 반대 측이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찬성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찬성측이 공유 주방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추론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신사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외식업의 창업과 운영을 돕는 사업 모델인 공유 주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 측이 아닌 찬성 측이다. 반대 측은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의 창업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면 폐업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고정비 절감이 반드시 사업의 성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06

정답 해설

답 ②

(㉠)에서는 찬성 측의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서는 외식업의 폐업률이 높다는 상황만을 보여줄 뿐 그 원인이 고정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통계자료는 찬성 측이 아니라 (㉡)의 필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결과 보고서'의 통계자료이다. 따라서 찬성측의 통계자료를 통해 외식업 폐업의 주원인이 고정비 부담임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에는 음식 배달과 관련된 기반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배달 중심 외식업과 공유 주방 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한 근거(음식 배달과 관련된 기반 구조가 잘 갖추어짐)를 보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토론에는 제시되지 않은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결과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인용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반대 측이 제시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찬성 측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 다양한 공유 주방 서비스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7

정답 해설

답 ④

[A]에서 '최근 공유 주방 서비스는 단순히 주방이라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창업만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과, (㉡)의 공유 주방 서비스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에는 공유 주방이 영업 교육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외식업계의 폐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8

정답 해설

답 ⑤

(㉡)의 초고를 보면, 3문단에서 '물론 이러한 이유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키오스크가 주는 많은 장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에서 학생이 기술 발전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의 '다만 노인들도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와 '지자체에서 키오스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노인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와 같은 부분에서 (㉡)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혜를 노인층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가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시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문항분석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느는 데다 주문 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 때문이다'에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도입부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기계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셀프 주문'하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의 '셀프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잘 보이는 위치에 자세한 사용법을 게시하는 것',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기능이 키오스크에도 도입'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 "그냥 예전처럼 사람이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매번 반복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소외감도 느껴진다"라고 문제 상황에 처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9

정답 해설

답 ②

㉠-2의 자료는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겪는 구체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키오스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3문단의 '키오스크가 주는 많은 장점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를 보면 ㉠의 초고가 키오스크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에서 노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취약하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에서 키오스크가 패스트푸드점 외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에서는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약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초고'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2에서는 노인들이 외래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서는 약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에 약어와 외래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정답 해설

답 ③

'스마트 기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일부の人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증가할 수 있음'이라는 키오스크 도입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두 내용 모두 제시된 ㉠

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문제로 제시하는 내용도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가 어긋나는 상황이기보다는 별도의 부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고령자들의 정보 격차는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는 내용은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를 상기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인층의 키오스크 활용 실태와 노인층의 키오스크 활용을 돕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글의 주제와도 결맞지 않은 내용이다.
- ④ '디지털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눈부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 ⑤ '키오스크는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의 2문단에서 '키오스크는 편리함을 위해 도입되었지만'으로 제시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과도기 인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내용은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11

정답 해설

답 ②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모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기에 현대국어의 '-시-'나 중세국어의 '-시-', '-샤-' 모두 어말어미 앞에 나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의 '미드샷'의 '-샤-', '-오-', 3문단의 '물노라'의 '-노-', '-오-' 등을 통해 중세국어에서도 선어말어미가 중첩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노-'는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한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객체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특수 어휘만 사용하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는) ~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세국어는 객체높임에 특수 어휘 '만'을 사용한 현대국어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특수 어휘'를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습니까'는 하나의 형태소로서 종결어미이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2문단에서 "상대높임 역시 종결어미로만 실현되는 현대국어와 달리"라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해설

답 ①

문주복 사당'과 '받조보리'에서는 모두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줄-'이 쓰였는데, 2문단에서 "음운환경에 따라 각각 '-술-', '-줄-', '-술-'과 같은 선어말어미도 사용되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두 경우는 동일한 음운환경에 놓여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쓰시리'와 '모르시니잇고'에는 모두 '-시-'가 발견되므로, 두 사례 전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항분석

- ③ 4문단에서 감동표현 선어말어미로 ‘-도-’뿐만 아니라 ‘-돏-’, ‘-웃-’, ‘-ㅅ-’ 등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사기돏다’에서는 ‘-돏-’을, ‘모락돏다’에서는 ‘-웃-’을 찾아내는 것이 적절하다. ‘모락돏다’의 ‘돏’은 2문단에서 설명한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하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과, 감동표현 선어말어미 ‘-웃-’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받조보리라’에서 ‘-조보-’의 경우, 2문단의 설명에 따라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중-’을 분리하고 나면 ‘-오-’가 남게 되므로, ‘닐오딧’의 ‘-오-’와 마찬가지로 인칭표현 선어말어미가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ㄴ과 ㄹ의 해석을 보더라도 해당 서술어의 주어는 1인칭(=화자)이기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락돏다’에도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해설

답 ③

㉠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여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는 선생님께 편지를 빼앗겼다.’에서 ‘빼앗겼다’는 어근 ‘빼앗-’에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 표현인데, ㉠의 설명과 달리 목적어 ‘편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걸렸다’는 피동 표현으로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으므로 ㉠에 부합한다.
- ② ‘숨겼다’는 사동 표현으로서 ‘아들들’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므로 ㉠에 부합한다.
- ④ ‘날렸다’는 사동 표현으로서 ‘풍선’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므로 ㉠에 부합한다.
- ⑤ ‘남겼다’는 사동 표현으로서 ‘메모’라는 목적어를 가지므로 ㉠에 부합한다.

14

정답 해설

답 ③

‘없는’이 [엄는]으로 발음될 때, 일어난 음운변동 현상은 자음군단순화(없는 → 엄는, 탈락), 비음화(엄는 → 엄는, 교체)로 볼 수 있으나, ‘꿀던’이 [꿀턴]로 발음될 때 일어난 음운변동 현상은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꿀던 → 꿀턴)가 일어나 축약된 것일 뿐 탈락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아무것도’는 음절끝소리규칙(아무것도 → 아무건도), 된소리되기(아무건도 → 아무건또)를 거쳐 [아무건또]로 발음되고, ‘땃더라’ 역시 음절끝소리규칙(땃더라 → 땃더라), 된소리되기(땃더라 → 땃떠라)를 거쳐 [땃떠라]로 발음되므로, 교체가 2회 일어난 것이 맞다.
- ② ‘놓고’와 ‘급히’는 각각 ㅎ+ㄱ→ㅋ, ㅃ+ㅎ→ㅍ의 거센소리되기 현상을 겪은 사례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났는데’와 ‘사왔는데’는 모두 음절끝소리규칙(ㄴ → ㄷ)을 거쳐, 비음화(ㄷ+ㄴ → ㄴ+ㄴ)된 사례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실질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연음은 받침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위치를 바꾼 것일 뿐, 음운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정답 해설

답 ③

ㄷ의 ⑥는 ‘형성+되+---(으)ㄴ’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때 접사 ‘-되다’는 앞 체언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여기에서 과거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형용사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높+--이’로 분석되고, ⑥는 ‘높+--이+--어’로 분석되는데, 이때 파생접사는 모두 ‘-이’로 그 형태가 같으나, ㉠의 ‘-이’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부사로 만든다면, ⑥의 ‘-이’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사로 만들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과 ⑥ 모두 ‘-기’라는 동일한 형태의 형태소가 동사 어간 ‘달리-’와 결합하고 있으나, ㉠의 ‘-기’는 ‘달리기’라는 명사로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파생접사로 볼 수 있으며, ⑥의 ‘-기’는 “새벽부터 학교에서 달리다”라는 문장을 명사절로 안기게 하고 있으므로 명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 ④ ㄱ의 ⑥는 “‘높+--이+--어’를 ‘높여’로 적은 경우이므로 파생접사 ‘-이-’와 연결어미 ‘-어’가 축약되어 표기된 사례가 되고, ㄷ의 ㉠은 ‘생각+하+--시+--었+--던’을 ‘생각하셨던’으로 적은 경우이므로 선어말어미 ‘-시-’와 ‘-었-’이 축약되어 표기된 사례가 된다.
- ⑤ ㄴ의 ⑥의 ‘-기’는 명사형 어미이고, ㄷ의 ⑥의 ‘-(으)ㄴ’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용언 ‘형성되-’가 뒤에 오는 의존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지문분석

1

¹고전적인 확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동일한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정의하는데, 이때 경우의 수는 사건의 발생 ㉡ 빈도와 밀접하다. ²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다."라는 말을 빈도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동전을 1만 번 던질 때 앞면이 5천 번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 된다. ³이때 0.5라는 확률은 큰수의 법칙*에 따라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반복 시행하였을 때 발견되는 값으로, 단순히 한두 차례 동전을 던지는 것은 빈도주의적 확률 계산과 무관하다.

* 큰수의 법칙: 어떤 일을 반복할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확률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

1문단의 POINT

1. 화제(WHAT): 확률론

빈도주의적 확률론

$$\frac{\text{원하는 경우의 수}}{\text{동일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경우의 수}}$$

(큰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은 횟수일 경우 빈도주의적 확률 계산과 무관)

예)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일 때

→ 동전을 1만 번 던질 때 앞면이 5천 번 나오는 경향

2. 글의 전개 방식(HOW): ㉠ 빈도주의적 확률론과 ㉡ 주관주의적 확률론의 이항 대립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되었군.

빈도주의적 확률론이라는 들어보기 힘든 생소한 개념으로 1문단이 시작되었다. 생소한 개념이면서 지문 서두에 있는 개념은 특히 유의해서 3번씩 읽고 KEYWORD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빈도주의적 확률론의 핵심은 큰수의 법칙이라는 조건에 부합할 때,

$$\frac{\text{원하는 경우의 수}}{\text{동일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경우의 수}}$$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수학과 동떨어져 있던 학생이었다면 시작부터 무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20 수능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실제로 큰수의 법칙도 주석으로 달아 주고, 예시까지 친절하게 서술해주었다면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빈도주의적 확률론의 핵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1문단만 보서는 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2문단의 ㉡을 통해 빈도주의적 확률론과 주관주의적 확률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었다면 훌륭하게 독해하고 있다.^^

지문분석

2

4그런데 현실에서는 큰수의 법칙에
⑥ 부합할 만큼의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확률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⁵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① 주관주의적 확률론으로, 이는
확률을 발생 빈도가 아니라 '특정 사건
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이론
이다. ⁶이러한 관점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
다."라는 말은,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라는 명제의 신뢰도가 0.5라는
뜻이 된다. ⁷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관적
인 신뢰도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정합성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⁸예컨대 어
떤 사람이 영화가 반장이 될 것으로 믿
는 확률이 0.7이라면 이와 ⑥ 모순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 즉 영화가 반장이 되
지 않을 것으로 믿는 확률은 0.3이어야
만 이러한 믿음이 정합성을 갖는다.

2문단의 POINT

◎ P → S

P	S(주관주의적 확률론)
현실에서는 큰수의 법칙에 부합할 만큼의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확률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 多	① 특정 사건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해석 → 예 확률이 0.50이면 신뢰도가 0.5 ② 주관적인 신뢰도여도 합리적인 정합성을 갖추어 야 함. (어떠한 사건에 대한 확률 + 이와 모순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의 합 = 1)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큰수의 법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
로 주관주의적 확률론이 제시되었다. 5번 문장을 읽으면서 둘의 해석 방법을 기준으로 이
항 대립적 사고를 해도 되고, P → S 구조로 이해해도 상관없다. 단 각각의 확률론이 어떤 방
법을 이용했는지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관주의적 확률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 3번 읽고 KEYWORD를 잡아야 한다. 주
관주의적 확률론은 '신뢰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이 신뢰도는 '합리적인 정합성'이라는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워보면

빈도주의적 확률론	주관주의적 확률론
동일한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	특정 사건에 대한 믿음의 정도
큰 수의 법칙을 따라야 함	합리적인 정합성을 가진 신뢰도여야 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반드시 출제되는 지점인 만큼 귀찮다고 대충대충 읽지 말고 꼭
대립각을 세워 정확하게 '차이'를 파악하자.

3

⁹이러한 주관주의적 확률론을 활용하
면 어떠한 가설이 참 또는 거짓일 확률
에 대한 논의가 용이해진다. ¹⁰빈도주의
는 충분한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가설
에 대한 확률을 논의하기 어렵지만, 주
관주의는 일회성 사건 또는 불확실한
가설에 대한 확률도 그 신뢰도를 합리
적으로 정의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¹¹또 경쟁적인 가설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가설들을 일일이 반복
시행하지 않더라도 가설들 간의 신뢰도
를 비교할 수도 있다.

3문단의 POINT

◎ 주관주의적 확률론

주관주의적 확률론
① 가설이 참 또는 거짓일 확률에 대한 논의가 용의 ② 경쟁적인 가설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가설들을 일일이 반복 시행하지 않고 가설 들 간의 신뢰도를 비교.

2문단에 이어서 주관주의적 확률론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가장 주목할 지점은 10번 문장
인데 빈도주의와 다시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위의 2문단에서 정리한 부분
에서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가설에 대한 확률 논의에 대한 둘의 '차이'를 같이 정리하자.^^

지문분석

4

¹²베이즈 추론은 이러한 주관주의적 확률 개념을 토대로 어떤 가설에 대한 신뢰도를 고쳐 나가는 추론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의 일종인 베이즈 정리에 @기 초한다. ¹³이에 따르면 사건 H가 일어날 확률을 P(H), 사건 D가 일어날 확률을 P(D), 사건 H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을 P(D|H), 사건 D가 일어났을 때 사건 H가 일어날 확률을 P(H|D), 사건 H와 D가 함께 일어날 확률을 P(H∩D)라고 표현하며, 조건부 확률은 $P(D|H) = P(H \cap D) / P(H)$ 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¹⁴H와 D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은, H가 일어나고 또 H가 일어난 상황에서 D가 일어나는 사건과 같으므로 $P(H \cap D) = P(H) \times P(D|H)$ 가 되기 때문이다. ¹⁵그런데 여기서 $P(H \cap D) = P(D \cap H)$ 이므로 $P(H) \times P(D|H) = P(D) \times P(H|D)$ 가 성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¹⁶이 수식에서 조건부 확률 P(H|D)가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나머지 3개의 알려진 값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즈 정리의 핵심 원리로, 이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17}P(H) \times P(D|H) / P(D) = P(H|D)$$

* 조건부 확률: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제약 아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5

¹⁸여기서 H를 불확실한 가설, D를 관측 가능한 자료라고 한다면, 위 수식은 가설의 사전확률 P(H)를 자료 D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확률 P(H|D)로 @갱신하는 절차가 된다. ¹⁹또, 만약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재차 유입되면 기존의 사후확률을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할 수도 있다. ²⁰결국 베이즈 추론은 어떤 가설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학적 과정에 대한 수학적 표현인 것이다.

4문단의 POINT

◎ 베이즈 추론

베이즈 추론

주관주의적 확률 개념을 토대로 신뢰도를 고쳐 나감 BY 베이즈 정리

$$\rightarrow P(H) \times P(D|H) / P(D) = P(H|D)$$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다면 4문단의 독해가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우스가 아니다. 조건부확률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 학생 들이었다면 13번 문장부터 17번 문장까지 무리 없이 읽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해도 차근차 근 지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어떤 사건 D가 일어났을 때 사건 H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P(H \cap D) = P(H) \times P(D|H)$ 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수식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초등학교 수준의 비례 반비례 정도로 끝이 난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 에서 쓰일 것이고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막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손을 써가 면서 정리하도록 하자.

5문단의 POINT

◎ 베이즈 추론을 이용한 사례

베이즈 추론을 이용한 사례

H: 불확실한 가설

D: 관측 가능한 자료

① 가설의 사전확률 P(H)를 자료 D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확률 P(H|D)로 갱신하는 절차 밝음.

② 새로운 정보가 재차 유입되면 기존의 사후확률을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

∴ 가설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학적 과정에 대한 수학적 표현

4문단에서 설명했던 베이즈 추론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서술하면서 지문이 마무리 된다. 5문단을 읽으면서 가장 큰 관건은 3문단과의 단락 간 연결이었을 것이다.

18번 문장을 통해 3문단과의 주관주의적 확률론에 대한 ①번과 18번 문장을 연결 짓고 19 번 문장과 3문단의 ②번을 단락 간 연결을 지으면서 독해했다면 훌륭하게 지문을 장악했다.

문항분석

1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전적인 확률 해석은 어떤 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를 중시한다.
- ② 특정 사건의 확률에 대한 빈도주의적 해석과 주관주의적 해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 ③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주관주의적 확률론이라 하더라도, 확률을 아무런 논리 없이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베이즈 추론에 따르면 어떤 가설의 사후확률은 가설의 신뢰도를 재차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될 수 있다.
- 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출제의 포인트 이항 대립

빈도주의적 확률론과 주관주의적 확률론의 정리가 잘 되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렸을 것이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의 특성상 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②

이글의 예시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다.”라는 같은 명제에 대해서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큰 수의 법칙에 부합할 때, 주관주의적 확률론은 신뢰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단어를 보고 바로 지워야 한다. 빈도주의적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큰수의 법칙에 부합하는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일 때고 주관주의적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합리적인 정합도를 가진 신뢰도가 아닐 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번 문장을 보면 고전적인 확률 이론은 빈도주의적 확률론을 의미하며,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사건의 발생 빈도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 ③ 각 확률론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잘 정리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지이다. 7번 문장에서 주관주의적 확률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 ④ 18번 문장에서 “만약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재차 유입되면 기존의 사후확률을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전혀 풀 필요 없는 선지이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수식이 아닌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13번 문장에서 설명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보면, $P(D|H) = P(H \cap D) / P(H)$ 라고 하였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A|B)$ 이므로, 이는 $P(A \cap B) / P(B)$ 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P(A \cap B)$ 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B)$ 는 B가 일어날 확률이므로 적절하다.

문항분석

17. ㉠, ㉡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마찬가지로 큰수의 법칙을 중시한다.
- ② ㉠은 ㉡과 달리 일회성 사건의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
- ③ ㉠은 ㉡과 달리 베이즈 추론의 수학적 인 기반을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불확실한 가설들 간의 확률을 비교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확률에 대한 비정합적인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

출제의 포인트 이항 대립 / $P \rightarrow S$

㉠은 빈도주의적 확률론, ㉡은 주관주의적 확률론이다. $P \rightarrow S$ 로 이해해도 좋고 둘의 이항 대립으로 이해해도 좋다. 어쨌든 이 지점은 이미 지문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우리에게 HINT를 남겨준 것이고 이런 문제일수록 미리 지문을 읽을 때 대비를 하여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④

9번 문장을 보면 빈도주의 확률론은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즉 불확실한 가설들 간의 확률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0~11번 문장을 보면 주관주의에서는 일회성 사건 또는 불확실한 가설에 대한 확률도 그 신뢰도를 정합적으로 정의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경쟁적인 가설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가설들을 일일이 반복 시행하지 않더라도 가설들 간의 신뢰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과 마찬가지로’를 보자마자 선지를 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빈도주의 확률론에서 단일 시행은 확률 계산과 무관하며, 확률을 구하려면 큰수의 법칙에 부합할 만큼의 반복 시행이 필요하다. 반면 주관주의 확률론에서는 큰수의 법칙에 부합할 만큼의 반복이 없어도 단일 시행에 대한 확률 논의가 가능하다.
- ② 일회성 사건의 확률 계산이 가능한 것은 빈도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 확률론이다.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큰 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시간을 이런데서 빼앗기면 안 된다. $\pi\pi\pi$
- ③ ㉠이 아닌 ㉡이다. 베이즈 추론은 빈도주의가 아닌 주관주의적 확률론을 토대로 한다고 하였다.
- ⑤ 주관주의 확률론에서도 확률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인 정합성, 즉 무모순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8번 문장의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영희가 반장이 될 것으로 믿는 확률이 0.7이라면 이와 공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 즉 영희가 반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확률은 0.3이어야만 그러한 믿음이 정합성을 갖는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항분석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1>의 명제를 해석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 1~6이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은 1/6이다.
-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후보 1번이 당선될 확률은 3/4이다.

<보기 2>

- ㄱ. ㉠은 ㉡에 비해, 빈도주의적 확률론을 따르는 해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명제라 할 수 있겠군.
- ㄴ. ㉠을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것이라는 명제의 신뢰도가 1/6이라는 의미가 되겠군.
- ㄷ. ㉡은 ㉠에 비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명제라 할 수 있겠군.
- ㄹ. ㉡을 빈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대통령 선거가 1,000번 반복될 때 후보 1번의 당선이 약 750번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가 되겠군.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제의 포인트 지연(지문과의 연관성)

<보기>문제는 항상 지연이를 잊으면 안 된다. ㉠과 ㉡을 보고 각각 어떤 확률론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각 확률론의 '조건'을 생각해서 접근한다면 전혀 어려울 것 없는 문제이다. 19년도 6월의 '법규' 지문도 비슷한 형식인데 예시를 읽으면서 지문과 연관 짓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자.^{^^}

정답 해설

답 ③

- ㄴ. 윗글에 따르면 주관주의적 확률론은 확률을 발생 빈도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기1>의 ㉠에 적용하면, <보기2> 'ㄴ'은 적절한 반응이다.
- ㄹ. 윗글에 따르면 빈도주의적 관점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동전을 1만 번 던질 경우 앞면이 5천 번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1>의 ㉡에 적용하면, <보기2> 'ㄹ'은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 피하기

- ㄱ. ㉠에서 언급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반복 시행이 가능한 반면, ㉡에서 언급한 대통령 선거를 반복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 ㉡에 비해 반복 시행의 개념을 내포한 빈도주의적 확률론의 해석이 더 쉬운 명제라 할 수 있다.
- ㄷ.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정의하는 것은 빈도주의적 확률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의 대통령 선거는 반복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빈도주의적 접근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명제라 할 수 있다.

문항분석

19. 위글에서 설명한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있다. 해당 도시의 폐암 환자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니, 100명 중 10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갑'이 신뢰도가 90%인 폐암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검사의 신뢰도란, 폐암에 걸린 사람이 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반응이 오류 없이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해당 도시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을 P(폐암)이라고 하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을 P(양성)이라고 하자. 폐암이 아닐 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P(양성|비폐암), 폐암일 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P(양성|폐암)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P(양성)은 폐암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올 확률과, 폐암인 사람이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올 확률을 더한 값이므로, $P(\text{비폐암}) \times P(\text{양성}|\text{비폐암}) + P(\text{폐암}) \times P(\text{양성}|\text{폐암})$ 이다.

- ① 주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 $P(\text{폐암})=0.1$ 이다.
- ② 주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 $P(\text{양성})=0.18$ 이다.
- ③ $P(\text{양성}|\text{비폐암})$ 은 검사의 양성 반응이 오진일 확률을 뜻한다.
- ④ 검사의 신뢰도가 90%라는 말은, $P(\text{폐암}|\text{양성})=0.9$ 라는 뜻이다.
- ⑤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갑'이 실제로 폐암에 걸렸을 확률은 0.5이다.

20.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요즘 해당 제품의 사용 빈도(頻度)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② ㉡: 사회적 통념과 부합(符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③ ㉢: 정부의 이번 정책은 헌법과 모순(矛盾)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④ ㉣: 논문을 기초(起草)하는 일은 끝났으니 이제 퇴고를 시작하겠다.
- ⑤ ㉤: 인간의 학습 과정은 정보 갱신(更新)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출제의 포인트 자연(지문과의 연관성) + WHY < WHAT

문항을 보는 순간 겁이 났을 것이다. 무서워 보이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해결해 보았듯이 18학년도 「오버슈팅」의 <보기> 문항, 19학년도 「우주론」의 <보기> 문항 모두 여러분에게 깊이있는 탐구 능력이나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은 문항이었다.

또한 과학이 과학을 묻지 않고, 기술이 기술을 묻지 않고, 철학이 철학을 묻지 않고, 경제가 경제를 묻지 않는다. 작년 수능의 「우주론」의 정답률 20%짜리 문항을 본 단 것이다. 지문과 문항의 생김새만 어마무시하게 생겼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풀어 가다 보면 어처구니없게 답이 쉽게 나오는 허당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능 독서 지문을 통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 속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 '정리' 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나임을 잊지 마라. 막연하게 깊이 있는 사고력과 독해력의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답 해설

답 ④

<보기>에서 검사의 신뢰도란 폐암에 걸린 사람이 검사를 받을 경우 오류 없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라고 하였다. 이는 '폐암에 걸렸을 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 즉 $P(\text{양성}|\text{폐암})$ 의 의미이다. $P(\text{폐암}|\text{양성})$ 은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폐암에 걸렸을 확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주어진 통계에서 100명 중 10명이 폐암에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P(\text{폐암})=0.1$ 이다.
- ② <보기>에서 $P(\text{양성})$ 은 $P(\text{비폐암}) \times P(\text{양성}|\text{비폐암}) + P(\text{폐암}) \times P(\text{양성}|\text{폐암})$ 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어진 통계를 고려할 때 $P(\text{비폐암})$ 은 0.9이고, $P(\text{양성}|\text{폐암})$ 은 폐암이 아닌 사람이 양성으로 잘못 판정될 확률 즉 검사의 오진 확률이므로 0.1이고, $P(\text{폐암})=0.1$ 이고, $P(\text{양성}|\text{폐암})$ 은 검사의 신뢰도이므로 0.9이다. 즉 $P(\text{양성})=0.9 \times 0.1 + 0.9 \times 0.1=0.18$ 이다.
- ③ $P(\text{양성}|\text{비폐암})$ 은 폐암이 아닌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이므로, 오진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폐암일 확률 $P(\text{폐암}|\text{양성})$ 은 $P(\text{폐암}) \times P(\text{양성}|\text{폐암}) / P(\text{양성})$ 이다. 즉 $0.1 \times 0.9 / 0.18 = 0.5$ 이다.

출제의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수능 말그릇」교재를 시간 날 때마다 적극 활용하자.

정답 해설

답 ⑤

선지에서 제시된 '기초(起草)하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어떤 글의 초안을 잡다.'의 의미인 반면, 위글의 ㉤에서 제시된 '기초(基礎)하다'는 '사물이나 일 따위의 근거를 두다.'의 의미이다.

1. <보기> 확인

네 번째 문항의 <보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의미 범주로 끊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 작품 독해에 활용해야 한다.

2. 문항들의 출제의 POINT 확인

고전소설은 MEANING을 묻지 않고 FACT CHECK만을 출제 요소로 한다. 문항들을 먼저 CHECK하고, 문제가 묻는 POINT에 집중해서 독해를 한다면, 수능 적합한 독해가 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문항은 일부분을 물어 보는 문항이므로, 그 부분을 읽고 바로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필수 CHECK LIST

1. 인물 ① 외적 ② 내적 (심리, 태도, 욕망)
2. 사건 (갈등의 요소)
3. 배경 (시간·공간)
4. 반복 / 변화 / 대비

어느 날 조웅이 스승에게 나아가 여쭙었다.

“어머님을 객지에 두옵고 오랫동안 뵈지 못했으니 잠깐 찾아뵈옵고 오겠습니
다.”

천명도사는 허락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했다. 조웅이 하직하고 적토마에
올라 한 번 채찍질하고 바람같이 달려갔다.

어느 새 칠백 리 밖의 강호 땅에 이르러 한 객점에 들어가 쉬었다. 이 객점
은 위나라 장 진사의 집인데 진사는 일찍이 죽고 그 위 씨가 홀로 딸 하나
만을 데리고 사는 집이었다. 그 진사의 딸이 인물도 아름답고 학문에도 뛰어나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하여 그 모친은 딸에 어울리는 훌륭한 신랑을 얻
고자 객점을 차리고 오가는 길손을 청하여 은근히 인물을 구경하던 참이었다.

▶S#01

이날 조웅이 들어가니 위 부인이 계집종에게 어떤 손님이나 물었다.

“마님, 어린 나그네이옵니다.”

계집종은 간단히 대답했다. 위 부인은 크게 실망하여 딸의 나이가 벌써 열여
섯인데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안타까워했다. 조웅은
저녁을 먹고 뜰에 나가 밝은 달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때 안채로부터 킁킁리깁
이 아름답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초산의 나무를 베어 객실을 지은 뜻은 인질을 보려한 것인데, 영웅은 아
니 오고 저지들만 오는구나.

[A] 오동나무 베어 거문고를 만든 뜻은 원앙새를 보려 한 것인데 까마귀만
지저귀는구나.

아이야, 술잔에 술 부어라. 술로써 근심이나 풀자꾸나.

조웅은 자기도 모르게 노랫소리에 취해 정신이 황홀해졌다. 이에 행장을 풀어
통소를 꺼내어 화답하니 그 소리가 그지없이 맑았다. 모친과 딸이 내당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이어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그 가사는 이러했다.

십 년을 공부하여 천문도를 배운 뜻은 달나라의 항아를 보려 했더니, 은
하수에 오작교가 없어 오르기 어렵구나.

[B] 푸른 대나무를 베어 통소를 만든 뜻은 그리운 님을 보려 한 것인데, 그
누가 이 뜻을 알리오.

아서라, 아는 이 없으니 객수(客愁)나 위로할까 하노라.

▶S#02

모친과 딸이 듣고 마음이 황홀하여 중문으로 나와 살며시 엿보니 나그네의
얼굴이 비범하고 풍채가 훌륭한 것이 눈이 번쩍 뜨였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딸을 보고 말했다.

“공자 같은 성인이 나시매 기린이 나고, 아름다운 딸이 나매 영웅이 나는도다.”

하니, 장 낭자가 부끄러워 별당에 들어가 숨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부친이 나와 엄숙히 이르기를,

“너의 평생 좋은 짝을 데려왔으니 오늘밤에 아름다운 인연을 맺도록 하라.
집 없는 나그네이니 한 번 가면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소설의 첫 장면은

- ① 상황을 요약 제시하거나
- ②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조웅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장 진사의 딸과 만나게 되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남

<보기>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삽입시는 인물의 내면 제시, 상황의 요약,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암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맥락에 따라 삽입시를 이해하여야 한다.

꿈

고전에서 ‘꿈’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안 그래도 조웅이 맘에 들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마저 꿈에 나타나서 조웅이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하시며 빨리 나가라고 성화같이 재촉하는 것이었다. 장 남자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일곱 개의 별을 입에 물은 황룡이 내려와 치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크게 놀라 깨어보니 일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든 기이한 꿈이었다. ▶S#03

이때 조용은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져 중문을 열고 별당까지 이르렀다. 장 남자가 이를 보고 놀라 이불 속에 몸을 숨기니 조용은 부드럽게 말했다.

“남자께선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길 가던 나그네인데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왔소이다.”

장 남자가 황망히 대단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어찌 예절을 돌보지 않고 아녀자의 방에 들어오십니까? 어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조용은 물러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자께서는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나도 양반의 후예이니 어찌 예절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처지가 부모의 승낙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아뢰기로 하고 백년가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S#04

[중략 줄거리] 조용은 어머니를 만나 장 남자와 혼약했음을 알리고,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간다. 이후 서번이 침공하자 조용은 위왕을 돕기 위해 출정하고, 장 남자는 강호자사*의 강압에 의해 그와 혼인을 하게 된다. 혼인 전날, 장 남자는 부친이 유서를 통해 지시한 대로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쳐 한 절에 이른다.

이곳은 바로 조용의 모친 왕부인이 계신 절이었다. 이에 중들이 장 남자를 왕 부인과 월경대사가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왕 부인이 보니 세상에서 보기 힘든 미인이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은근히 물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험한 고생을 겪는구나. 위국땅에 산다고 하니 이번 싸움의 승패를 아는가?”

장 남자가 절하며 아뢰었다.

“오다가 듣자오니 서번 오랑개가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하옵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조용이 반드시 살아오리라 믿고 근심을 덜었다. 이어 장 남자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다가 물었다.

“강호에 살았다면 혹시 장 진사 댁의 딸을 아는가?”

장 남자가 크게 의아하여 도리어 물었다.

“어떻게 장 처녀를 아십니까?”

그러자 왕 부인은 아들 조용이 그간에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장 남자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행장을 끌러 부채를 내놓았다.

“소녀가 공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즉시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때 공자께서 주고 가신 신물이옵니다.”

왕 부인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 남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가 정말 장 처녀라면 나의 며느리이니라.”

하면서, 부채를 들어 유심히 살피며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부채는 내 아들 웅의 부채가 틀림없구나. 그 아이가 전에 산을 내려가서 장 진사 댁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면서 네 말을 여러 번 했느니라. 내 생전에 너를 보지 못하고 죽을까 염려했더니 하늘이 도우사 오늘 이렇게 만났구나.” ▶S#05

- 작자 미상, 「조웅전」 -

*항아(瓊娥):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상아(嫦娥)

*자사(刺史): 중국에서 군(郡), 국(國)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에 두었던 감찰관.

→ 결연의 완성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을 시 읊는 소리와 꿈만 믿고서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상황 이기는 하다. πππ

→ 줄거리는 작가가 아닌 평가원이 써 주는 것이다. 쓸데 없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3번씩 읽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 본문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 갈등의 제시와 해소

그리고 보니 작품에 갈등의 요소가 없었다. 작품 후반부는 갈등과 고난을 제시하고 있다.

강제로 결혼하게 된 장 남자는 결혼 전날 도망치고 우여곡절 끝에 왕 부인을 만나는데, 조용의 어머니이다. 우연에 의한 전개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

→ 긴 대화에 주목

대화는 고전소설의 꽃이다. 특히 긴 대화에는 ① 갈등 상황이나 ② 상황 요약 중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담겨 있을 것이다.

왕 부인과 장 남자의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원의 지문 구성 의도 분석

평가원은 왜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나?**[전체 줄거리]** → 조웅의 장 낭자와 결연, 영웅적 행적 등 다채로운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공신이자 좌승상인 조정(또는 조정인)은 간신인 우승상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 자살한다. 천자는 조 승상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조 승상의 아들 조웅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태자는 조웅을 형제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두병은 천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웅을 후한이 두려워 죽이려고 한다. 하루는 조웅이 거리에 나가서 이승상에 대한 욕을 거리에 써 붙이고 돌아오는 데, 그 날 밤 조웅의 어머니가, 이 승상이 조웅을 죽이려고 한다는 몽조를 얻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조정에서는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등극한다. 이에 간신 이두병이 권세를 마음껏 부리다가 마침내 어린 황제를 외딴 섬으로 축출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자칭 천자라 하니, 만조 백관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웅 모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다가, 부친의 초상을 그려 준 월결 대사를 만나 산사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어느덧 15세가 된 조웅은 모친과 대사에게 출세할 결심을 말하고 도승을 찾아가는데, 낙산 도사로부터 3척 신검을 얻고, 찰관 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게 된다. 조웅이 하루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도중 위국공 장 진사의 집에 우연히 들려 장 진사의 딸 장 소저와 남몰래 백년가약을 맺는다. 조웅을 보내고 장 소저는 연모 끝에 병이 들어 죽는다. 조웅은 도사로부터 장소저가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도사가 주는 선약을 가지고 가서 소저를 소생시킨다.

이에 장 진사는 자기 딸과의 결혼을 승낙한다. 조웅은 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사의 분부를 받들어 변방의 오랑캐들과 역적 이두병을 격멸하고 송나라 황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선다. 도중에서, 서번이 침입하였을 때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황 군의 영혼으로부터 갑주와 보검을 얻는다. 이 때,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므로, 위국으로 달려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는다. 조웅은 위왕과 이별하고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남해 절도로 간다. 한편 강호 자사가 상처하고 후실을 구하던 중, 장소저가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매파를 보내어 청혼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강제로 취하고자 한다. 장소저가 이를 피하여 산양사에 있는 강선 암으로 가서 조웅의 모친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조웅이 남해로 가던 도중 강호 자사를 베고, 강선암으로 가서 모친과 장소저를 만나 보고는 즉시 떠난다. 태자가 있는 곳에 도달하여 마침 이두병이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죽이려는 것을 물리치고 태자를 구출한다.

서번왕이 조웅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웅이 태자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조웅에게 곤욕을 당한다. 조웅은 다시 서번왕의 항복을 받고 중국으로 와서 영웅·명장을 규합하여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 관리들을 차례차례로 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간다. 조웅은 위왕의 청에 의하여 위왕의 장녀를 태자의 비로 삼고, 차녀는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뒤 강선암으로 가서 모친과 소저를 찾는다. 그 뒤 위왕과 연합하여 수십 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를 등극시킨다. 이에 왕실이 회복되니 조웅의 명성은 천하에 널리 떨치게 된다.

[갈등 관계]

조웅과 장 낭자의 결연에 대한 방해와 해소

[중략 이전과 이후의 연결]**중략 이전**

결연 상황의 제시

중략 이후

결연에 대한 갈등 상황의 제시와 해소

→ **중략 전후의 연결 포인트** : 고전 소설의 기본은 갈등이다. 결연 상황을 우선 제시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갈등 상황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문항분석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점을 전환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중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 ③ 전기적 성격을 띤 사건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 ④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작중에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제의 포인트 FACT CHECK

고전 소설의 시작과 끝은 FACT CHECK이다.

정답 해설

답 ④

‘부채’를 통해 ‘장 남자’와 ‘왕 부인’이 서로 고부지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일관되게 서술되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장 남자’와 그녀의 ‘모친’ 모두 신이한 꿈을 꾸긴 하지만 이는 ‘조웅’의 비범함이나 ‘장 남자’와 ‘조웅’이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뿐, 극적 갈등의 해소와는 무관하다.
- ⑤ “이에 조웅이 남자의 손을 이끌고 백년가약을 맺으니 어찌 천생 배필이 아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만 앞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2.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밤중에 ‘장 남자’의 방으로 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은 성급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계집종’의 말만 듣고 ‘조웅’의 비범함을 눈치 채지 못한 채 실망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부인’은 경솔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강호자사’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조웅’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아, ‘장 남자’는 신의가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장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유사한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왕 부인’은 의심이 많은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조웅’이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도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 ‘천명도사’는 세속과 절연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출제의 포인트 FACT CHECK

고전 소설의 시작과 끝은 FACT CHECK이다.

정답 해설

답 ③

‘장 남자’는 ‘조웅’과 가약을 맺었기에, ‘강호자사’와 같은 권력자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스스로 피신하여 ‘조웅’과의 의리를 지키려 하고 있으므로 신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웅’과 ‘장 남자’가 노래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였다는 점, ‘장 남자’가 꿈의 내용, ‘조웅’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져 별당을 찾아와 말하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만남은 단순히 ‘조웅’의 성급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② ‘위 부인’이 ‘계집종’의 보고만 듣고 ‘조웅’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린 나그네’라는 정도의, 정보량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장 남자’와 함께 ‘조웅’의 노래를 듣고 그의 훌륭함을 깨닫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왕 부인’이 ‘장 남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장 남자’를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그녀가 보기 드문 미인이라 그녀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천명도사’가 속히 돌아오라고 한 것은 조웅의 수련을 위한 것일 뿐이다.

문항분석

23. 윗글의 [A]와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화자는 '조옹'을 만난 첫인상에 대한 실망을 '거지', '까마귀' 등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B]의 화자는 '통소'의 연원을 밝히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군.
- ③ [B]와 달리 [A]의 화자는 대비적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B]의 화자는 자신의 노래가 [A]의 답가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시의 의미구조를 차용한 것이겠군.
- ⑤ [A]와 달리 [B]의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군.

출제의 포인트 삽입시의 기능

고전 소설에서 종종 사용되는 삽입시의 기능을 묻고 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의 삽입시의 기능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해설

답 ①

서사 전개상 [A]의 화자를 '장 남자'(또는 '위 부인')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인걸'과 '영웅' 등은 '장 남자'가 만나길 바라는 신랑감을 표현한 것이고, '거지'와 '까마귀'는 '장 남자'의 신랑감이 되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때의 '장 남자'(또는 '위 부인')은 아직 조옹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계집중'의 말만 전해들은 상황이므로, 이를 '조옹을 만난 첫인상에 대한 실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파하기

- ② '통소를 만든 뜻은 그리운 님을 보려 한 것인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인걸', '영웅'과 '거지'의 대비, '원앙새'와 '까마귀'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B]에서는 그와 같은 대비적 시어를 확인할 수 없다.
- ④ [A]와 [B] 모두 자신이 의도한 바를 노래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한 심정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⑤ [B]에서는 "그 누가 이 뜻을 알리오."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A]에서는 영탄적 표현만이 확인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로 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소설에서 결연담은 일반적으로 순차적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연 주체들이 서로를 인식한 후 상대를 탐색하며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는 '㉠ 인식과 구애'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주체들의 욕망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다가 '㉡ 결연'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을 때를 약속하면서 사물을 교환하는 '㉢ 기약'으로 이어진다. 그 후 내적 심경의 변화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련을 겪지만 이를 이겨내는 '㉣ 장애와 극복'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각 단계는 주체들의 욕망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 ① '장 낭자'와 '조웅'이 자신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노래를 주고받는 것은 ㉠로, 주체들의 욕망과 의지를 통해 상황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장 낭자'가 '왕 부인'의 허락 없이 '조웅'과 교감을 이루는 것은 ㉡로, '왕 부인'이 두 인물의 결연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장 낭자'가 '왕 부인'에게 보여준 부채는 ㉢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 낭자'와 '조웅'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인 받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군.
- ④ '장 낭자'가 '강호자사'와 강제로 결혼하는 위기에 처했으나 탈출하여 '왕 부인'과 만나게 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므로 ㉣라고 볼 수 있군.
- ⑤ '장 진사'는 꿈을 통해 '장 낭자'와 '조웅'을 맺어주거나 유언을 통해 '장 낭자'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과 ㉣에서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군.

출제의 포인트 FACT CHECK

고전 소설의 시작과 끝은 FACT CHECK이다. 특히 3점 <보기> 문항에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생각의 순서를 반드시 'F→M'으로 풀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②

'왕 부인'은 오히려 '장 낭자'의 혼사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이다. 또 '장 낭자'와 '조웅'의 육체적 결합이 자유연애 사상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부모의 무릅쓰고 일어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 단계에서 나타나는 '외부적 요인' 또한 '강호자사'이지 '왕 부인'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장 낭자'와 '조웅'은 스스로의 욕망과 의지를 통해 서로를 알리는 매개체로서 노래를 교환하며 인식과 구애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왕 부인'이 '장 낭자'가 가진 부채를 보고 이를 '조웅'의 것이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채는 '조웅'이 '장 낭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기>의 '기약' 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④ '조웅'과 '장 낭자'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받지만, 그중 '강호자사'의 강압은 외부적 시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강호자사'로부터 탈출하여 '왕 부인'을 만나는 것은 시련에 대한 극복으로 볼 수 있다.
- ⑤ '장 진사'는 인식과 구애의 단계에서 '장 낭자'로 하여금 '조웅'을 만나보도록 한다거나, 혹은 '강호자사'와 강제로 혼인하게 된 위기에 빠진 '장 낭자'가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미리 유서를 남겼다는 점에서 조력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지문분석

1

¹‘격물(格物)’과 ‘치지(致知)’는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의 핵심 개념으로,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후대 유교의 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²유교의 주류 학파였던 ㉠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는 격물의 ‘격(格)’을 ‘이르다’로, 치지의 ‘치(致)’를 ‘극까지 추구하다’로 풀이한 바 있다. ³이에 따르면 격물은 ‘물(物)’ 즉 외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연구한다는 뜻이 되며, 치지는 ‘지(知)’ 즉 앎을 극한까지 추구하여 미진한 바가 없도록 한다는 뜻이 된다. ⁴결국 치지는 격물을 통해 얻는 성과로서, 주희는 이들의 관계가 ‘식사-포만감’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로 불렀다.

1문단의 POINT

1. 화제(WHAT) : 격물치지의 해석

주자학의 해석	
격물	치지
외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연구	앎을 극한까지 추구하여 미진한 바가 없도록 함
치지는 격물을 통해 얻는 성과 예 식사(격물)- 포만감(치지)	

2. 글의 전개 방식(HOW): 격물치지의 해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되었군.

인문지문의 특징을 보여주는 서두였다. 격물과 치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일종의 P를 제시하면서 글이 시작된다. 2번 문장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지문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주자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면 다른 학자의 의견 역시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자학의 해석을 잘 정리한 후,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워 이항 대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⁵주희에게 격물치지의 궁극적 목적은 우주의 보편적 이치, 즉 ‘이(理)’에 대한 인식이었다. ⁶주희는 우주 만물이 ‘이(理)’와 ‘기(氣)’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는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에 해당하는 ‘성(性)’이 곧 ‘이(理)’라는 ‘성즉리설(性即理說)’을 주장하였다. ⁷그는 기(氣)는 감정이나 정욕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과 밀접하므로, 변덕스러운 기(氣)보다는 타고난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⁸결국 주희의 격물치지란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⁹우리가 주자학을 ‘이학(理學)’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에 연유한 것이다.

2문단의 POINT

㉡ 주자학 - 성즉리설

성즉리설 : 이(理) = 성(性,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	
이	기
우주의 보편적 이치	감정이나 정욕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 (변덕스러움)
격물치지 : 도덕적 본성인 ‘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단이다. 2문단의 관건은 2가지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이’와 ‘기’의 개념을 3번 읽고 KEYWORD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기’는 각각 ‘보편적’과 ‘변화’를 중심으로 KEYWORD를 잡을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주희가 성즉리설을 기반으로 격물치지를 해석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기’는 변덕스러운 반면 ‘이’는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올 것이다. 3문단을 읽으면서 주희의 주장을 마무리 하자.

지문분석

3

¹⁰주희는 개별 사물의 구체적 이치는 사물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사물에 보편적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¹¹따라서 격물을 통해 치지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면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적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¹²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보편적 이(理)는, 성즉리설의 관점에서,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¹³주희의 격물치지는 결국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태도를 내포한 셈이다.

3문단의 POINT

◎ 주자학 - 선지후행

선지 후행

- ① 모든 사물에는 보편적 이치('이')가 반영되어 있음
 - ② 격물을 통해 치지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면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적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음
 - ③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어짐
- ∴ 선지후행의 태도 필요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보다 선행)

결국 주희는 여러 개별 사례로부터 '이'를 꿰뚫어 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즉 선지후행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부분도 없고 차근차근 정리한다면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¹⁴한편 명나라의 사상가 왕수인은 주자학을 비판하며 격물치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¹⁵마음[心]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주장한 왕수인의 관점에서, 성즉리설에 기초한 주자학은 심과 이를 분리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¹⁶또 그는 무수히 많은 개별 사물의 이치를 모두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연구만으로는 참된 도덕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¹⁷이에 왕수인은 치지를 '치량지(致良知)'로 풀이하고 격물의 '격(格)'을 '바로잡다(正)'로 풀이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인 ㉠양명학^{*}을 정립하였다.

* 양명학(陽明學) : 왕수인의 호인 양명을 따서 그의 사상을 이르는 말.

4문단의 POINT

◎ 왕수인 VS 주희

왕수인	주희
① 심과 이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① 심즉리설 : 마음이 곧 '이'
② 인간은 천하 만물의 이치를 모두 연구할 수 없고 있다고 해도 연구만으로 참된 도덕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	② 인간은 천하 만물의 이치를 모두 연구할 수 있음

3문단까지는 쉽게 읽혔어도 이제 다시 긴장하면서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왕수인은 주희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비판하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위의 2가지 비판을 중심으로 왕수인은 치지를 치량지로 풀이하고 격물의 격을 바로잡음으로 풀이하는 양명학을 정립하였는데,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집중해서 앞으로의 문단을 읽어야 한다.

지문분석

5

¹⁸왕수인은 먼저 치량지를 참된 앎인 '양지(良知)'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¹⁹그에게 참된 앎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²⁰이처럼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그 순서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관점을 취하였다. ²¹다음으로 그는 격물을 외부 사물의 부정한 바를 바로 잡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²²주희에게 물(物)이 이치를 연구해야 하는 인식의 대상이었다면, 왕수인에게 물(物)은 옳고 그름을 파악해야 하는 판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5문단의 POINT

◎ 양명학 - 지행합일

지행합일	
격물	치지(치량지)
외부 사물의 부정한 바를 바로 잡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것	참된 앎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

앎과 실천은 순서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됨.

본격적으로 왕수인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지문이 여러분의 귀에 이항 대립의 GAME을 하자고 속삭이고 있다. 2~3문단의 주자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과 단락 간 연결을 하면서 둘의 해석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특히 22번 문장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주자학에서의 물은 이치를 연구해야 하는 '인식'의 대상인 반면 양명학에서의 물은 옳고 그름을 파악해야 하는 '판단'의 대상인 것이니 어떠한 대상인지를 중심으로 둘의 차이를 정리하자.

6

²³㉠ 이러한 왕수인의 해석을 종합하면, 주희의 격물치지는 '치지격물(致知格物)'로 전환된다. ²⁴내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지, 즉 도덕적 능력을 자각하여 실현하는 것이 치량지다. ²⁵그리고 치량지를 통해 내 마음의 이(理)를 외부 사물에 확충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격물이다. ²⁶따라서 왕수인은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을 연구하여 이치를 찾기보다는, 내적 수양을 통해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²⁷양명학을 이학(理學)과 대비하여 '심학(心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6문단의 POINT

◎ 주자학(주희) VS 양명학(왕수인)

주자학	양명학
격물치지 : 격물을 통해 치지를 얻는 과정을 반복해서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적 이치를 꿰뚫어 보아 인간 본연의 도덕성을 자연스럽게 발현	치지 격물 : 치량지를 통해 내 마음의 이를 외부 사물에 확충하여 잘못을 바로 잡음
이학 : 격물을 통해 보편적 가치인 '이'를 깨달을 것을 강조	심학 : 내적 수양을 통해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달을 것을 강조

마지막 문단까지 읽으면 그말이 그말인 것 같은 느낌을 들 것이다. 인문지문의 경우 특히 재진술(PARAPHRASING)을 하는 것이 많은데 지문의 주제를 하나로 관통하는 '꼬치구이식 독해'를 해야 한다. 결국 왕수인은 주희와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심 나무를 잡은 채로 가지를 하나하나 치는 과정을 통해 양명학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서 정리했던 주자학과 차이를 비교한다면 문제를 풀 때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문항분석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희는 격물과 치지의 본래 의미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 ② 주희는 개별적으로 다른 사물 모두에 보편적인 도덕적 본성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은 기존의 이기이원론인 관점을 타파하고 이(理)와 기(氣)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 ④ 왕수인의 양명학은 기존의 주류 학설이었던 주자학을 대체하여 유교의 새로운 중심적 이론이 되었다.
- ⑤ 주희는 연구를 통해 마음[心]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제의 포인트 이항 대립

이 지문의 중심 구조인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문제를 보자.

정답 해설

답 ②

주희(주자학)의 주장에 대해 잘 정리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10번 문장의 “주희는 개별 사물의 구체적 이치는 사물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사물에 보편적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주희는 성(性), 즉 타고난 도덕적 본성이 곧 보편적 이치인 이(理)와 같다는 성즉리설을 주장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주희가 격물치지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 해석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본래 의미를 부정했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애초에 격물과 치지의 본래 의미가 있었다면 지문의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다. ππ 골라서는 안 되는 선지이다.
- ③ 왕수인이 주장한 것이 아닌 주희가 주장한 것이다. 왕수인은 이기이원론, 특히 기(氣)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윗글에서 찾을 수 없다.
- ④ 2번 문장에서 주자학이 유교의 주류 학파라는 내용은 있기 때문에 앞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양명학이 유교의 새로운 중심적 이론이 되었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7번 문장을 보면, 주희는 감정이나 정욕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은 기(氣)와 밀접하다고 하였고, 기를 이에 비해 중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心]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본성’이라는 진술은 주희의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

문항분석

26. ㉠과 ㉡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지식의 추구가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은 ㉡과 달리, 외부에서 보편적 이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은 ㉠과 달리, 인간이 가진 도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 ④ ㉡은 ㉠과 달리, 마음과 이치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⑤ ㉡은 ㉠과 달리, 외부 사물을 인식이 아닌 판단의 대상으로 보았다.

출제의 포인트 이항대립

주자학과 양명학의 이항 대립이다. 지문의 메인 구조인 만큼 확실하게 각각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③

㉡ 양명학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적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도덕을 선천적으로 본 것이 맞다. 그런데 ㉠ 주자학 역시 6번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즉리설의 관점에서 성(性)을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으로 본다. 따라서 '㉠과 달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3번 문장을 보면 ㉠ 주자학은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에 앞서는 선지후행의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된 반면, 20번 문장을 보면 ㉡ 양명학은 앎과 실천이 하나라는 지행합일의 관점을 취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 주자학은 외부 사물에 대한 연구로부터 보편적 이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 반면, ㉡ 양명학은 외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진정한 도덕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왕수인이 비판한 주희의 주장의 '근거'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다. ㉡ 양명학은 심이 곧 이라는 심즉리설의 관점에서 ㉠ 주자학이 심과 이를 이분법적으로 잘못 파악하였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지문 분석에서 언급했듯 물(외부 사물)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나온 22번 문장의 중요성이 선지로 그대로 나와 다시 한번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 양명학은 물(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면, ㉠ 주자학은 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인식하려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문항분석

27.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희의 격물은 '외부 사물에 이르다'라는 뜻인 반면, 왕수인의 격물은 '외부 사물을 바로잡다'의 의미이다.
- ② 주희의 격물치지는 격물과 치지를 통합하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치지와 격물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다.
- ③ 주희의 격물치지는 격물이 치지에 선행(先行)하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치지가 격물에 선행하는 것이다.
- ④ 주희의 격물치지는 외부를 인식하여 앎을 쌓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나의 깨달음을 확장하여 외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⑤ 주희의 격물치지는 개별에서 보편적 이치를 끌어내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보편적 깨달음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출제의 포인트 이항 대립

이번에는 격물치지의 해석에 대한 주희 VS 왕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선지를 끊어서 주희의 의견과 왕수인의 의견 둘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②

우리가 격물과 치지를 분리해서 개념의 KEYWORD를 잡았다고 왕수인이 치지와 격물을 분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희가 격물과 치지를 통합한 것은 4번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수인이 치지와 격물을 엄격히 분리하였다는 내용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 ① 2번 문장을 보면 주희는 격물(格物)의 격(格)을 '이르다'로 해석한 반면, 17번 문장을 보면 왕수인은 격(格)을 '바로잡다'로 풀이하였다.
- ③ 11~13번 문장을 보면 주희는 외부에 대한 연구인 격물을 통해 치지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는 선지 후행의 태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격물을 선행 과정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왕수인은 치지를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하였으므로 치지를 선행 과정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④ 4번 문장을 보면 주희는 격물이 외부에 대한 연구이며 치지가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된 성과라고 하였다. 반면 25번 문장을 보면 왕수인은 마음의 깨달음이자 실천인 치량지를 통해, 이(理)를 외부 사물에 확충하여 그 잘못을 판단하여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라고 하였다.
- ⑤ 11~13번 문장을 보면 주희는 개별적인 외부 사물에 대한 격물을 통해 치지가 축적된다면 궁극적으로 보편적 이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24~26번 문장을 보면 왕수인은 이미 보편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깨달아 실천하여 외부 사물에 적용하는 것이 치지격물이라고 하였다.

28. 윗글과 <보기>를 모두 고려할 때, 학자들 간의 사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의 학자 최한기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이치인 이(理)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기존 유학이 강조했던 경전의 탐구 또는 마음의 수양 모두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타고난 본성은 없으며,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은 다음, 사물의 객관적 법칙과 비교하여 그 지식이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지식의 획득 과정을 추측(推測), 그 검증 과정을 증험(證驗)이라 하며, 추측으로 얻은 지식을 추측지리(推測之理), 사물의 객관적 법칙을 유행지리(流行之理)라 한다.

최한기는 유행지리는 인간의 도덕과는 상이한 원리이며, 이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 세계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추측과 증험으로 얻은 이(理)는 도덕성이 탈각된 사물 자체의 이(理), 즉 '물리(物理)'라고 보았다. 결국 최한기는 격물치지를 객관적인 물리를 획득하는, 일종의 경험적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 ①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적인 도덕에 둔 주희·왕수인과는 달리, 최한기는 학문을 통해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 ② 왕수인은 자신의 도덕을 기준으로 외부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최한기는 외부 사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 ③ 최한기가 제시한 '추측'은 주희가 해석한 '격물'과 어느 정도 비슷한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최한기가 제시한 '증험'은 왕수인이 해석한 '격물'과 상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격물치지'를 외부에 대한 탐구인 '격물'을 통해 앎인 '치지'를 얻는다고 해석할 경우, 주희와 최한기의 '격물'은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가 되는 반면 주희와 최한기의 '치지'는 상이한 의미가 되겠군.
- ⑤ '치지격물'을 앎인 '치지'를 외부에 적용하는 '격물'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왕수인과 최한기의 '치지'는 상이한 의미가 되는 반면 왕수인과 최한기의 '격물'은 유사한 의미가 되겠군.

출제의 포인트 삼항 대립

<보기>에서는 최한기의 의견에 대한 서술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항 대립에서 나아가 최한기, 왕수인, 주희 이 3명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한기의 의견을 정리해보자.

최한기의 의견

인간에게 타고난 본성 X,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은 다음, 객관적 법칙과 비교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검증해야 함을 주장

추측지리	유행지리
추측으로 얻은 지리	사물의 객관적 법칙
격물치지 - 객관적인 물리를 획득하는 일종의 경험적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재 해석	

정답 해설

답 ⑤

왕수인에게 앎으로서의 '치지'는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내적 수양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반면 최한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없다고 보았고, 앎 즉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본다. 또, 왕수인에게 '격물'은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외부 사물에 확충하는 행동인 반면, 최한기는 자신이 얻은 지식을 유행지리(외부의 객관적 법칙)를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지를 외부에 적용하는 행동인 '격물'을 주희와 왕수인이 유사한 의미로 풀이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주희는 격물치지를 통해 보편적 이치인 이(理)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理)는 곧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성에 해당한다. 왕수인 또한 치지격물을 통해 선천적인 도덕적 본성을 깨달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인간적인 도덕에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한기는 인간의 도덕과 상이한 자연의 객관적 이치인 물리를 얻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다.
- ② 왕수인은 심즉리설의 관점에서 마음에 내재된 이치를 통해 외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최한기는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는 추측의 과정을 거친 다음, 그 지식을 외부의 객관적 법칙인 유행지리와 비교하여 증험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최한기의 '추측'은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또 주희의 '격물'은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비록 그리하여 얻는 지식이 객관적 원리와 보편적인 도덕적 이치로 각기 달라지기는 하지만, 외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둘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최한기의 증험은 내가 얻은 지식을 외부의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그 오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왕수인의 격물은 내가 얻은 참된 앎을 외부 사물에 확충하여 외부 사물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따라서 최한기의 증험과 왕수인의 격물은 상반된 의미라 해석할 수 있다.
- ④ 주희는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로서 격물을 해석하였고, 최한기 또한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다. 그런데 주희는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는 지식, 즉 치지는 결국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상통하는 보편적 이치와 밀접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최한기는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는 지식은 인간의 뜻인 도덕과는 상이한 원리라고 보았다.

1. 제목이 주는 단서

전쟁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한 작가의 상황과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설분신원(雪憤伸冤)할 것을 다짐하며 기개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판옥선을 탄 현재의 상황과 연관 지어 현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던 배를 떠올리며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등 전란에 대한 관념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 고전시가의 주제는 상투적이고 관습적

전쟁의 비애를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어 함. 우국단심(憂國丹心)

반복 / 변화 / 대비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너실치,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노래오니
㉠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진목(勵氣臚目)*하야 대마도(對馬島)를 구버보니
벼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빋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輗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빅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더 사이(四夷) 엿볼넌고
무슴 일 하려 하야 빅 못기를 비롯하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마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 어즈버 씨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빅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되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밧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일키나 어더 닉여,
만리 장성(萬里長城) 늑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편고?
늑되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십(已甚)하다.
㉤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하논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하로소니
㉥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더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데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하흔 어부생애(漁父生涯)를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더 부쳐 든힐넌고?

→ 현대어 풀이

늘고 병든 몸을 통주사(수군)로 보내시므로
을사년(선조38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변방의 중요한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고 앓아 있겠는가?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굳이 올라가서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르는 노란 구름은 멀고 가깝게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이로구나.
배 위에서 서성이며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중국에서 처음 배를 만들었다가
는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가 아득하고 넓어서 천지에 둘러 있으니,
참으로 배가 아니면 거센 물결이 굽이치는 만 리 밖에서
어느 오랑캐들이 엿볼 것인가?
현원씨는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왜 그는 천만 년 후세에 끝없는 폐단이 되도록
넓은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길렀는가?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잇다고 하더라도 왜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의 말을 굳이 듣고 동남동녀를 그토록 들여서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만들어 두어,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다 미친다.
오래 사는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던가?
남처럼 죽어 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아, 생각하니 서불(진시황 때의 주술사)의 무리가 너무
심하다. / 신하의 몸으로 망명 도주도 하는 것인가?
신선을 만나지 못했거든 쉽게나 돌아왔으면
통주사(나)의 이 근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시비를 팽개쳐 던져 버리자.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황제가 처음으로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줄도 모
르겠도다.
장한이 강동으로 돌아가 가을 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를 타지 않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해도 어
는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삼공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경치가 좋은 곳에서
부평 같은 어부의 생활을
자그마한 배가 아니면 어디에 부쳐 다니겠는가?

어떤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고기잡이라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치라 하자니 물건이 없고, 진리(津吏)*라 하자니 중류(中流)에 머물러 왕래하지 않으니, 일엽편주(一葉片舟)를 헤아릴 수 없는 물에 띄워서 끝없는 만경창파를 넘다가 거친 바람 놀란 물결에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지면 혼비백산하여 목숨이 지척에 달려 있는데, 이는 지극히 험한 곳을 밟고 지극히 위태로운 일을 무릅쓰는 것이거늘, 그대는 이를 즐겨 아주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냐?”

라고 하니, 주옹이 말하기를,

“아! 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잡고 놓음이 무상한 것이라, 평탄한 육지를 밟으면 태연히 여겨 방심하게 되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떨고 두려워하게 되나니, 떨고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하여 굳게 지킬 수 있으려니와, 태연히 여겨 방심하면 반드시 방탕하여 위태롭게 된다.

내 차라리 험한 곳에 처하여 항상 조심할지언정, 안일한 데 살아 스스로 황폐해짐을 막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이리저리 떠돌아 일정한 형적이 없음에야! 만약 한쪽으로 편중이 있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좌우로 기울지도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 중심을 지켜 평형을 잡은 뒤에야 기울어지지 않아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니, 아무리 거센 풍랑인들 어찌 내 마음의 홀로 편안한 바를 요동시킬 수 있겠는가!

또 인간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은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라, 조그마한 내 한 몸이 아득히 그 가운데 빠져 표류하는 것이 마치 일엽편주가 끝없는 만경창파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대개 내가 배에 있으면서 한 세상 사람을 보니, 편한 것을 믿고서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다가, 함께 빠져 망하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 하였다.

이윽고 주옹이 뱃전을 두드리면서 노래하기를,

아득한 강과 바다 유유한데 / 빈 배를 중류에 띄웠구나.

명월을 싣고 홀로 가노니 / 애오라지 한평생을 넉넉하게 살리라.

라고 하니, 손이 사례하며 작별하고 가서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 진리: 나룻배로 강을 건네주는 사람.

→ 손의 질문

‘배’라는 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일인데, 배를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 주옹의 답변

‘배’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원의 지문 구성 의도 분석

평가원은 왜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나?

- 수필은 ‘체험’과 그에 대한 ‘내면의 반응’(주로 교훈이나 깨달음)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 작품을 정리하면 된다.

■ **체험** : 배 위에서의 삶(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위태로움)



■ **내면의 반응(깨달음)** : 땅 위에서의 삶은 태연하여 느긋하여 오히려 흐트러지고,
배 위에서의 삶은 늘 조심하고 경계하기에 오히려 안전하다.

[작품의 CODE]

체험 → 교훈

(배 위의 위태로운 삶에 대한 체험에서 깨닫는 인생의 역설적인 교훈)

문항분석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와 달리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제삼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가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 포인트 FACT CHECK

표현상 특징 문항이지만, 사실상 FACT CHECK 문항이다. 표현상 특징 문제는 선지가 물어 보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답 해설

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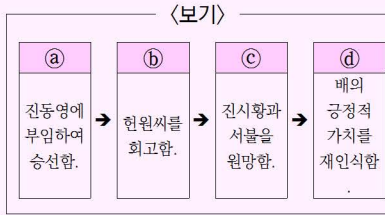
㉠에서 '비 비록 있다'는 구절은 '비록 배가 있었더라도 왜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라는 뜻으로, 이 구절은 왜적이 생기지 않았을 상황을 가정하여 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서도 손[客]의 첫 대사에서 '그대'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데, 이때 고기잡이, 장사치, 진리 등으로 가정하며 '그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현원씨의 진시황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원씨의 고사에서는 현원씨가 배를 만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진시황의 고사에서는 진시황이 왜 사람들을 만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은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② ㉠에서는 '보람 조진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흰 빛칠쇠.'에서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런 구름과 푸른 물결이라는 자연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대구의 방법도, 자연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은 화자 자신의 시점에서 '배'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심정, 그리고 화자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은 지문 속의 인물이 아닌 제삼자가 '손'과 '주옹' 사이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은 인물들 간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고 화자만의 독백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은 '손'과 '주옹'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문항분석

30. ㉠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대마도 쪽을 바라보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에서 화자는 전쟁의 원인으로 배의 존재를 들면서 배를 발명한 현원씨를 원망하고 있어.
- ③ ㉢에서 화자는 일본의 탄생과 전쟁의 원인으로 진시황과 서불을 지목하며 원망하고 있군.
- ④ ㉣에서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하는 자신의 성품을 반성하고 있어.
- ⑤ ㉣에서 화자는 ㉡에서 품은 생각을 부정하며 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군.

출제의 포인트 시사 전개

<보기>에 제시된 대로 작품 내용을 정리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④

㉢에서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풀이하면, '곰곰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라는 뜻으로, 이는 맥락을 고려할 때 화자가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하는 자신의 성품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배가 만들어진 것을 탓하고 왜적이 만들어진 것을 탓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LITERALLY하게 FACT CHECK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선지가 적절하려면 화자는 스스로를 '잘못을 따지기 좋아'했다고 여겨야 한다. 하지만 화자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인지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기왕 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으로소니'나 '속절업슨 시비를 후리쳐 더더 두자'라는 표현이나, 이후 맥락에서 자신의 성품에 대한 반성이 아닌 배를 타고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맥락(주변글자)를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화자는 배에서 대마도를 굽어보며 일본과의 전쟁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 지문 전체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현원씨를 회고하고 있는데, '어리미친 회포(懷抱)애 현원씨(軒轅氏)를 애드 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현원씨를 회고하는 것은 현원씨를 원망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고,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 화자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현원씨'는 이러한 '배'를 처음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화자가 원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화자는 진시황과 서불을 원망하고 있는데, 진시황을 원망하는 것은 진시황이 어린 아이들을 섬에 많이 데려가 일본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서불을 원망하는 것은 서불이 신선을 만나러 가서 빨리 돌아오지 않고 섬에 오랑캐의 씨를 퍼뜨려 일본인이 생기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진시황과 서불을 일본의 탄생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된 사실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 ⑤ 화자는 ㉡에서는 배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 ④의 해설에서도 설명했듯이, 화자는 ㉢에서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부질없음을 깨닫고 ㉣에서는 황제가 배를 만든 것이 그릇된 줄 모르겠다고 하고 배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면서 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해석만 잘 되었으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문항분석

31. (가)의 ‘빅’과 (나)의 ‘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빅’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수단이다.
- ②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빅’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 근원적 요인이다.
- ③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빅’과 마찬가지로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배’는 주옹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대상인 반면, (가)의 ‘빅’은 화자에게 고난을 부여한 대상이다.
- ⑤ (나)의 ‘배’는 주옹에게 긍정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반면, (가)의 ‘빅’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도구로만 여겨진다.

출제의 포인트 중심 소재의 의미

두 작품에서 공통된 중심 소재인 ‘배’의 의미를 묻고 있다. 작품의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④

(나)에 나오는 주옹의 말에서 주옹에게 배는 한쪽으로 편중하지 않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알게 해 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의 ‘배’는 주옹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대상인 것이다. 반면에, (가)의 ‘빅’은 화자에게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한 대상이므로 화자에게 고난을 부여한 대상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전체적으로는 ‘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반부에 배를 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이 등장한다. 그러나, (나)에서 ‘주옹’은 배가 자신에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줄을 계속해서 강조할 뿐,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해주는 수단임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서 ‘빅’은 왜란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므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 근원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주옹의 배는 긍정적이지만 한 대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나)에서 주옹은 배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화자가 ‘빅’을 ‘선택’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⑤ (나)의 ‘배’는 주옹의 삶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므로 긍정적인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가)는 전체적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을 일으킨 대상으로, 부정적인 도구로 여겨지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자연을 즐기게 해 주는 긍정적인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즉, 부정적인 도구로 ‘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극단의 범주’는 항상 주의해야 할 표현이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의(寓意)’는 사회의 지배적 이념을 옹호하는 듯한 표면적 주제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내면적 주제가 충돌하며 긴장감을 자아내는 문학 양식이다. 특히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 표면적으로는 우국충절이나 강호가도와 같은 당대의 가치를 예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란을 막지 못한 백성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도모했던 왕과 신하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엄격히 검열하던 사회에서, 사대부들이 가졌던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양가적(兩價的)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① ㉠에서 병이 깊다고 해도 앓아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당대의 지배적 가치인 우국충절을 예찬하던 사대부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에서 ‘헌원씨’에 대해 원망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어리미친 회포’라 말하는 것은, 사회적 검열을 의식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어.
- ③ ㉠은 표면적으로는 전란의 발발을 ‘진시황’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란을 막지 못한 왕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은 표면적으로는 ‘서불’의 불충(不忠)을 비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백성들을 버리고 중국으로의 망명을 도모했던 지배층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에서 갑자기 ‘속절업슨 시비’를 뽐내치고는 배를 타고 즐기는 강호가도를 예찬하는 모습을 보니,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사대부들의 양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출제의 포인트 <보기>를 통한 해석

아주 좋은 문항이다. <보기>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고 정리한 다음, 선지를 끊어 읽어 가면서, 작품과 비교하면서 적절함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문학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고전시가라는 장르의 특성상 ‘F→M’의 순서에 따라 FACT CHECK에 집중해야 함을 잊지 말자.

정답 해설

답 ②

만약 ㉠에서 ‘헌원씨’를 원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검열을 의식했다면, ‘헌원씨’가 <보기>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지배층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문에서 묘사되는 ‘헌원씨’는 배를 처음 만든 사람일 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헌원씨’에 대한 원망을 부정적인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리미친 회포’라는 표현은 ‘어리석고 미친 듯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지문을 자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서 사대부들이 ‘표면적으로는’ 우국충절이나 강호가도와 같은 당대의 가치를 예찬했다고 하였다. ㉠에서 병이 깊다고 해도 앓아만 있을 수 없다는 표현 또한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화자의 우국충절을 보여주는 표현이므로 우국충절을 예찬하던 사대부들의 ‘표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은 표면적으로,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시황’이 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란이 일어났다고 하며 진시황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임병양란 이후의 문학에서 내면적으로는 전란을 막지 못한 왕과 신하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이 작품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④ ㉠도 ㉠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표면적으로는 ‘서불’의 불충(不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불이 섬으로 가고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백성들을 버리고 중국으로의 망명을 도모했던 지배층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⑤ ㉠ 전까지는 ‘배’를 만든 ‘헌원씨’를 원망하며 ‘배’의 부정적인 속성만을 부각하였는데, ㉠에서 갑자기 의미 없는 시비를 따지는 것을 그만두더니, 이후에는 배를 만든 것이 그릇된 줄 모르겠으며, 배를 타고 즐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배를 타지 않았으면 아무리 경치가 좋았어도 흥이 나지 않았을 것이며, 경치가 좋은 곳에서의 어부의 생활이 배가 없었다면 의탁할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는 ㉠ 이후에서 강호가도를 예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당대의 사대부들이 양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화자가 배에 대해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는 것 또한 사대부들의 양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선지의 앞부분은 지문에 제시된 사실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뒷부분은 의미 해석의 측면이기는 하지만,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분석

1

¹소비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물자나 용역(用役)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²가계, 기업, 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가 소득에서 소비와 저축의 비율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이다. ³또 각 경제 주체의 소비를 ④ 집계(集計)하여 얻을 수 있는 '총소비' 역시 학문적 연구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⁴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자율·보유 자산·물가·경기 등에 대한 전망·기호와 취미·정부 정책 등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소비 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을 소비함수라 한다. ⁵현대적 의미에서 소비함수를 최초로 경제학에 도입한 것은 경제학자 케인스이다.

2

⁶케인스는 이른바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소비함수론을 제시하였다. ⁷그는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취득하는 '절대소득'이며, 다른 요인들은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⁸케인스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높은 이자율이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 케인스는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⑥ 부차적(副次的)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비함수론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⁹그는 어떤 사람의 소비에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소득만이 영향을 미치며, 소비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다음 일차함수로 표현하였다.

$$C = a + bY \quad (a > 0, 0 < b < 1)$$

1문단의 POINT

1. 화제(WHAT) : 소비함수

소비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활동
총소비	각 경제 주체의 소비를 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음

소비 함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 소득, 이자율, 보유 자산 등등)과 소비와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

2. 글의 전개 방식(HOW): 케인스가 경제학에 도입한 소비함수를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겠군.

6문제나 되는 장지문에서는 특히 1문단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1문단의 관건은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소비와 총소비의 개념을 3번 읽고 KEYWORD를 잡았어야 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글에서 새로운 용어를 통해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읽으면서 KEYWORD를 잡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지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겠다.

소비함수를 최초로 경제학에 도입한 것은 케인스인데 어떤 방식으로 경제학에 소비함수를 도입했는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소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함수로 표현했는지 등을 집중해서 앞으로의 글을 읽어나가야 한다.

2문단의 POINT

◎ 케인스 VS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케인스 절대소득가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해당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취득하는 '절대소득'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	이자율 ↑ → 저축 ↑, 소비 ↓

2문단을 읽었을 때 경제 지문이 어려운 학생이었다면 수식에서 멘붕에 빠졌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케인스와 같은 경제학자가 아닌 2020 수능 국어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임을 명확히 인지하자. 2문단의 관건은 3가지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케인스와 고전학파 경제학자간의 이항 대립이다.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전제로 한 입장에서,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경우 이자율이 저축과 소비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극단의 범주 '만'의 표시를 잘 했어야 할 것이다. 소비함수론에서는 자신의 소득 '만'이 영향을 미치고 소비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무조건적으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POINT들은 잘 표시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수식을 제시한 채로 2문단이 끝났는데 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활용이 될 것이므로 어떻게 활용 될지에 주목해서 3문단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¹⁰위 함수식에서 C 는 소비, a 는 독립적 소비, b 는 한계소비성향, Y 는 당기(當期)의 가처분소득(이후 간단히 '소득'으로만 표기한다.)*을 의미한다. ¹¹먼저 케인스는 Y 값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소비 a 는 ◎ 상수(常數)로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량의 독립적 소비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¹²다음으로 한계소비성향(MPC) b 는 소득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소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을 의미한다. ¹³즉 소비 증가분을 ΔC , 소득 증가분을 ΔY 라고 할 때, MPC는 $\frac{\Delta C}{\Delta Y}$ 로 계산된다. ¹⁴케인스는 인간의 기본 심리상 소비 증가분은 소득 증가분보다 항상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b 의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¹⁵일반적으로 b 의 값은 고소득층의 소비함수보다 저소득층의 소비함수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저축보다는 소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더 쉽게 놓이기 때문이다.

4

¹⁶케인스의 소비함수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¹⁷'갑'이 독립적 소비에 50만 원을 쓰고,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소비가 5만원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갑의 소비함수는 $C = 50 + 0.5Y$ 이 된다. ¹⁸즉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총 100만 원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¹⁹만약 '갑'의 소득이 100만 원 추가되어 총 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갑의 소비는 총 150만 원이 된다. ²⁰여기서 소득 증가분 100만 원에 대한 소비 증가분은 50만 원이므로, 갑의 MPC가 0.5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²¹이러한 소비함수를 따르는 갑은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자를 보게 되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저축할 @ 여력(餘力)이 생긴다. ²²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3문단의 POINT

1. 독립적 소비 a

케인스의 소비함수

$$C = a + bY \quad (a > 0, 0 < b < 1)$$

a : 0보다 큰 값을 가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량의 소비가 필수적이므로)

2. 한계소비성향 b (MPC)

한계소비 성향(MPC)

$$\textcircled{1} b(\text{MPC}) = \frac{\Delta C(\text{소비 증가분})}{\Delta Y(\text{소득 증가분})}$$

$\textcircled{2} \Delta C < \Delta Y$ 이므로 $0 < b < 1$ 의 값을 가짐

$\textcircled{3} b$ 의 값 : 고소득층 <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저축(소비인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

2문단에서 서술했던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 a, b 에 대한 서술이 나왔다. 이제는 문제에서 적용하겠다는 M@Q의 자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독립적 소비(a)의 경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정도로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MPC가 하이라이트인데, 위의 표의 ①~③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로 출제되기 좋은 지점들만 서술되었고 실제로 문제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머리로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정리를 꼭 해야 한다.

4문단의 POINT

◎ MPC - 예시

MPC - 예시

a : 50 만원

MPC : 0.5인 경우

$$C = 50 + 0.5Y$$

$$50 + 0.5 \times 100 = 100$$

'갑'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100만원 증가한 경우

ΔC : 50만원 ↑

∴ 저축 = 소득 - 소비 이므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자에 처하게 되고 100만원을 넘겨야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

2문단의 케인스의 소비함수 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면 4문단의 예시는 멘붕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김상훈이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듯 STOP 없이 글을 직진해서 읽어봤자,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고 시간을 더 쏟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MPC에 대한 예시가 흑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위의 표처럼 소득이 증가한 경우와 평소 일 때를 수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축에 대한 새로운 식이 나왔으므로 이 또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1문단의 2번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 경제 주체가 의사 결정을 할 때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문은 각 단락이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다. 이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4문단이었다.

지문분석

5

²³케인스의 소비함수를 통해 평균소비성향(APC)을 분석할 수도 있다.

²⁴APC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frac{C}{Y}$ 에 해당한다.

²⁵전술했던 '갑'의 경우, 소득이 100만 원인 상황에서 갑의 APC는 $100/100=1$ 이며, 소득이 200만 원인 상황에서 갑의 APC는 $150/200=0.75$ 이다. ²⁶그런데 케인스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경제 주체의 APC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²⁷함수식을 APC를 중심으로 재정

리하면 $\frac{C}{Y} = \frac{a}{Y} + b$ 가 된다. 여기서 a 는 상수이므로 Y 의 값이 증가할수록 $\frac{a}{Y}$ 의 값은 작아지며, 그에 따라 $\frac{C}{Y}$ 의 값 또한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²⁸㉔ 이는 곧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6

²⁹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되었기에 단기적 분석에 중점을 둔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 분석에서는 약점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³⁰실제로 후대의 학자 쿠틀레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인스의 예측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APC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MPC와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³¹또,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소득 이외의 요인들을 ㉔ 간과(看過)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³²그러나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함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경제 불황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단기적 소비 분석에는 여전히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공황: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극심한 경제적 불황.

*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

5문단의 POINT

㉔ APC

APC(평균소비성향)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 $\frac{C}{Y}$

① 소득이 100만원 : APC : $1(100/100)$

② 소득이 200만원 : APC : $0.75(150/200)$

$$\frac{C}{Y} = \frac{a}{Y} + b \text{으로 정리하면}$$

Y 의 값이 증가할수록 $\frac{a}{Y}$ 의 값 $\downarrow \rightarrow \frac{C}{Y} \downarrow$

$\therefore$ 고소득층의 저축률 > 저소득층의 저축률

MPC에 이어서 이번에는 APC(평균소비성향)에 대한 서술이 나왔다. 위의 예시, 그리고 2문단의 수식과의 연결(단락 간 연결)을 하는 것이 5문단의 가장 큰 POINT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17번 문장에서 언급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b 의 값이 높다는 것에 대한 연결을 지었다면 독해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4문단과 마찬가지로 이 지점은 표처럼 예쁘게까지는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표의 내용만큼은 본인만의 표시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MPC와 APC는 초등학교도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어느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을 예측하냐일 것이다. 지문에서 문제를 예측하는 과정은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

6문단의 POINT

㉔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에 대한 비판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에 대한 비판

①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기적 분석에는 약점을 보임

② 장기적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APC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MPC와 일치하게 됨.

③ 소득만을 중시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간과

BUT 특수 상황에서의 단기적 소비 분석에는 여전히 유용

마지막으로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에 대한 비판을 장기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 때, 3가지 비판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기적일 때와 장기적일 때를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워 이항 대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6문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일 때는 기존의 3, 4, 5문단에서 서술했던 것과 달리 APC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MPC와 일치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 지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분석

33.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고 글의 뒷부분을 예측해 질문 만들기를 한 다음, 글을 읽고 점검해보자.

예측 내용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케인스가 도입한 소비함수의 의미 및 그 계산 방식이 설명될 것이다.	예측과 같음 ... ①
• '총소비'에 대한 분석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까닭이 설명될 것이다.	예측과 다름 ... ②
•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케인스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특정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어 현대에 이르렀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되지 않음 ... ⑤

출제의 포인트

19학년도 수능에서 처음 시도된 유형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읽기 계획'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의 출발점이다. 또한 점검 결과가 '예측과 같음 / 다름', '질문의 답이 제시됨 / 제시되지 않음'과 같이 단순히 지문에 근거가 있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정답 해설

답 ④

1번 문장을 보면 소비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물자나 용역(用役)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활동이라고 나와서 성급하게 질문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글의 핵심은 소비와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는 소비함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설명했지 특정 물자나 용역에 대한 소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4번 문장에서 소비함수의 의미를 제시하고, 5번 문장에서 이 소비함수를 최초로 경제학에 도입한 사람이 케인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6번 문장에서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소비함수론을 제시했다고 함으로써 케인스가 도입한 소비함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C = a + bY$ ($a > 0, 0 < b < 1$)이라는 소비함수식을 제시하고 그 계산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측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 ② 1문단의 3번 문장에서 '총소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문단에서 총소비에 대한 분석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까닭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즉, 예측과 본문의 내용이 다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 ③ 1문단의 4번 문장에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이자율, 보유 자산, 물가, 경기에 대한 전망, 기호와 취미, 정부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7번 문장을 통해 케인스는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절대소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질문의 답이 제시됐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 ⑤ 30번 문장에서 후대의 학자인 쿠즈네츠가 케인스의 예측과 다른 사실을 발견했음을 알 수는 있지만,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즉, 질문의 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문항분석

34. 윗글을 고려할 때, 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비 증가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② Y 가 감소할 때 $\frac{C}{Y}$ 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 감소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Y 가 감소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③ Y 가 감소할 때 $\frac{C}{Y}$ 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감소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④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⑤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출제의 포인트

분모나 분자가 증가할 때 전체 분수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남은 분자나 분모는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는 17학년도 보충 지문, 칼로릭 지문 등에서 등장했던 유형이고, 나올 때마다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다. 단순히 지문과의 일치 여부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증감을 직접 따져보며 한 단계 더 생각해봐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한 두 번만 풀어보면 적응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꼭 연습하도록 하자.

정답 해설

답 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 문제를 우왕좌왕하면서 풀지 않기 위해 선지에서 묻고 있는 문자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0번 문장을 통해 ' C = 소비, Y = (가처분)소득'임을 알 수 있고, 24번 문장을 통해 ' $APC = \frac{C}{Y}$ =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는 소득인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소비의 증가율 < 소득의 증가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저축 = 소득 - 소비' 이므로(22번 문장) 소비의 증가율 < 소득의 증가율인 상황에서는 소득인 Y 가 증가할수록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소비(분자)의 증가율 < 소득(분모)의 증가율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지만 그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Y)에서 소비(C)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말하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②, ③ 밑줄 친 ㉔는 '고소득층'의 저축률이 '저소득층'의 저축률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고, 문제는 이에 대해 추론하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선지에서 말하는 ' Y 가 감소할수록'은 저소득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항분석

35. 윗글에 제시된 케인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케인스는 고전학파와 달리 이자율이 저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개인의 소비 수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만을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 ③ 케인스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필수적 소비는 소비함수식에서 소득 값의 변화에 맞추어 변동한다고 보았다.
- ④ 케인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⑤ 케인스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출제의 포인트

케인스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문과 선지를 하나하나 대응하며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지를 보면 케인스 VS 고전학파, 고소득층 VS 저소득층과 같이 대립각을 세워 서술된 부분을 묻는 선지들이 있다. 이를 통해 이항대립은 지문의 주요 출제 POINT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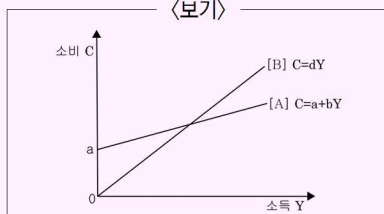
답 ③

10번 문장을 통해 소비함수 그래프의 절편에 해당하는 a 는 독립적 소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1번 문장을 통해 독립적 소비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량의 소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수'로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란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하므로, 선지의 설명처럼 '소득 값의 변화에 맞추어 변동'한다면 이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8번 문장을 보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높은 이자율이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반면, 케인스는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자율이 저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 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스는 이자율이 저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② 9번 문장을 보면 케인스는 어떤 사람의 소비에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소득만이 영향을 미치며, 소비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로 소비함수론을 전개했다. '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선지다.
- ④ 14번 문장을 보면 케인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법칙 때문에 소비 증가분이 소득 증가분보다 항상 작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소득 이상으로 소비가 증가하진 않을 것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 ⑤ 12번 문장에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을 한계소비성향(MPC)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 b 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15번 문장에서 b 의 값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케인스는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케인스의 견해에 따라 소득에 따른 소비의 단기적 변화를 나타낸 소비함수 그래프이다.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인 b 의 값은 $\frac{\Delta C}{\Delta Y}$ 로 계산할 수 있다.

[B]는 쿠즈네츠의 연구에 따라 소득에 따른 소비의 장기적 추이를 나타낸 소비함수 그래프이다. 이때 C 는 Y 에 일정하게 비례하므로, 그래프의 기울기인 d 의 값은 $\frac{C}{Y}$ 또는 $\frac{\Delta C}{\Delta Y}$ 로 계산할 수 있다.

(단, $a > 0$, $0 < b < 1$, $0 < d < 1$ 이며, ΔC 는 C 의 단위당 증가분, ΔY 는 Y 의 단위당 증가분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그래프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과 소비는 없다고 간주한다.)

- ① [A]는 [B]와 달리 소득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인 소비가 반영된다.
- ② [A]는 [B]와 달리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 ③ [B]는 [A]와 달리 한계소비성향의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난다.
- ④ [B]는 [A]와 달리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값이 일치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출제의 포인트

<보기>의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보기>에서 [A]는 케인스, [B]는 쿠즈네츠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제시했으므로 각 그래프에 관한 해석은 본문에서 케인스에 관한 부분, 쿠즈네츠에 관한 부분을 토대로 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③

<보기>에 의하면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른 '단기' 소비함수 그래프이고, [B]는 '쿠즈네츠'의 연구를 따른 '장기' 소비함수 그래프에 해당한다. 또한 <보기>의 설명을 통해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 b 와 쿠즈네츠의 소비함수에서 d 는 모두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조건에서 $0 < b < 1$, $0 < d < 1$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두 그래프의 기울기 모두 1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다. 15번 문장에서 $\frac{\Delta C}{\Delta Y}$ = 한계소비성향(MPC)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기울기인 b 와 d 는 한계소비성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의 한계소비성향이 [A]의 한계소비성향과 달리 1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말하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1번 문장을 보면 케인스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량의 소비, 즉 '독립적 소비'는 0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케인스의 견해를 따른 [A]에는 소득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인 소비 a 가 반영된다고 보아야 한다. [B]는 그래프상 $a=0$ 이므로 독립적 소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는 [B]와 달리 소득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소비(a)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23번 문장, 24번 문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APC) = $\frac{C}{Y}$ 임을 알 수 있다. 우선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고, 16번 문장에서 케인스는 소비(C) 증가분 < 소득(Y) 증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A]는 소득 증가에 따라 $\frac{C}{Y}$ 가 감소한다고 볼 것이다. 반면 [B]는 <보기>에서 C 는 Y 에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frac{C}{Y}$ 는 불변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A]는 [B]와 달리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 ④ 12번 문장을 통해 한계소비성향 = MPC이고, 23번 문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 = APC임을 알 수 있다. 이때 31번 문장을 통해 쿠즈네츠는 케인스의 예측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APC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MPC와 일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쿠즈네츠의 연구를 따르는 [B]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르는 [A]와 달리 MPC와 APC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B]에서 C 는 Y 에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에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른 소비함수이므로 14번 문장을 참고해 해석하면 소비 증가분이 소득 증가분보다 항상 작음을 알 수 있다.

문항분석

37. 윗글에서 설명한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적용하여 <보기1>의 상황을 분석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기 1>

3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을'은 필수적인 의식주에 100만 원을 소비하고, 소득이 50만 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 중 30만 원을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5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병'은 필수적인 의식주에 150만 원을 소비하고, 소득이 50만 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 중 20만 원을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보기 2>

- ㄱ. <보기1>에 주어진 상황에서 '을'의 MPC 값이 '병'의 MPC 값보다 크게 나타나겠군.
 ㄴ. '을'의 가처분소득이 250만 원으로 감소할 경우, '을'은 저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겠군.
 ㄷ. '을'의 소비(C_1)과 가처분소득(Y_1)의 관계를 케인스의 소비함수로 나타내면, $C_1 = 100 + 0.4Y_1$ 가 되겠군.
 ㄹ.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을'의 가처분소득만이 500만 원으로 증가할 경우, '병'과 '을'의 APC 값이 역전 되겠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8. 윗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미 된 계산들을 한데 모아서 계산함.
 ② ㉡: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결말된.
 ③ ㉢: 변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양.
 ④ ㉣: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아직 남아 있는 힘.
 ⑤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출제의 포인트

<보기>의 (가처분)소득, 소비가 각각 Y 와 C 에 대응함을 알아야 하고, 문제에서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적용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C = a + bY$ ($a > 0, 0 < b < 1$)에 각 값을 대입하여 풀어야 한다. a 와 b 가 각각 독립적 소비와 한계소비성향(MPC)에 대응한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또한 문제는 '소비'함수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보기1>의 사례는 '저축'의 예시를 들고 있음에 주의하자.

정답 해설

답 ①

- ㄱ. 22번 문장에서 '저축 = 소득 - 소비'라고 했으므로 '소비 = 소득 - 저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3번 문장을 통해 MPC는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적용해보면, 을의 소비는 50만원 - 20만원 = 30만원, MPC는 $30 / 50 = 0.6$ 임을 알 수 있다. 병의 소비는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MPC는 $20 / 50 = 0.4$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다.
 ㄴ. 케인스의 소비함수 $C = a + bY$ ($a > 0, 0 < b < 1$)에 대입해보면 a 는 100만원, b 는 0.6이다. 이때 가처분소득인 Y 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한다면 을의 소득(C)은 $100 + 0.6 \times 250 = 250$ 이 된다. 22번 문장을 보면 '저축 = (가처분)소득 - 소비'이므로 을은 저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오답 피하기

- ㄷ. 을의 독립적 소비 a 는 100만원, 을의 MPC는 $30 / 50 = 0.6$ 이므로 $C_1 = 100 + 0.6Y_1$ 이다.
 ㄹ. 24번 문장을 통해 APC는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frac{C}{Y}$)임을 알 수 있다. <보기1>의 상황에서 을의 APC는 $100 / 300 + 0.6 \approx 0.93$ 이고, 병의 APC는 $150 / 500 + 0.4 = 0.7$ 이다. 또한 을의 가처분소득이 500만 원으로 증가한 경우의 APC는 $100 / 500 + 0.6 = 0.8$ 이다. 변화 전 후 모두 을의 APC > 병의 APC이므로 '역전'됐다는 선지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의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수능 말 그릇」 교재를 시간 날 때마다 적극 활용하자.

정답 해설

답 ④

여력(餘力)은 '어떤 일에 주력하고 아직 남아 있는 힘.'을 의미하는 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제목이 주는 단서

‘중국인 거리’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일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2. <보기> 확인

네 번째 문항의 <보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의미 범주로 끊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 작품 독해에 활용해야 한다.

필수 CHECK LIST

1. 인물 ① 외적 ② 내적 (심리, 태도, 욕망)
2. 사건 (갈등의 요소)
3. 배경 (시간·공간)
4. 반복 / 변화 / 대비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굶어낸 고운 재를 문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은 차양 안쪽 깊숙이 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를 뒤엎말을 받았다.

①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는 독(瀆)*이 그렇게 퍼렷겠니.

겨울 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엎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금이 돋은 등어리를 찹찹찰찰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들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S#01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욕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은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끼를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 제일 큰 극장이었대.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욕이가 소근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날을 델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내고 있는 중이었다. / ㉡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욕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욕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찹찹 침을 빨아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 야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 소설의 첫 장면은 ① 상황을 요약 제시하거나 ②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탄가루’로 상징되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하고 살기 힘든,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노란색의 ‘반복’

작품의 전반부는 노란색의 색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고, 오정희 작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노란색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치욕이가 말하는 ‘미용사’의 꿈 ← ‘노오란 목소리’

②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③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④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약속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작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모두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극장’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굉음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그리고 ‘메스꺼움’이 가라앉지 않고 ‘골치가 아’프다.

즉 이 작품에서 노란색은 어린 시절 ‘나’가 처한 부정적 상황(시련, 고난, 갈등)을 통합하여 색채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면 되겠다.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엇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S#02

[중간부분의 줄거리] 앞집 치옥의 집에 놀러 간 어느 날,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창백한 표정의 중국인 청년을 본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

제분 공장에 다니던 치옥이의 아버지가 피땀줄에 감겨 다리가 끊긴 후 치옥이의 부모가 치옥이를 삼거리의 미장원에 맡기고 이 거리를 떠난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나는 매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미장원 앞을 지나치며 유리문을 통해 치옥이를 보았다. 치옥이는 자꾸 기어올라가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당겨 바지 허리 위로 드러나는 맨살을 가리며 미장원 바닥에 떨어진 머릿칼을 쓸고 있었다.

나는 미장원 앞을 떠났다. 수천의 깃털이 날아오르듯 거리는 노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㉔ 언제였지, 언제였지, 나는 좀체로 기억나지 않는 먼 꿈을 되살리려는 안타까움으로 고개를 흔들며 집을 향해 걸었다.

▶S#03

그리고 집 앞에 이르러 언덕 위의 이층집 열린 덧창을 바라보았다. 그가 창으로 상체를 내밀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내가 끌리듯 언덕 위를 올라가자 그는 창문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닫힌 대문을 무겁게 밀고 나왔다. 코허리가 낮고 누른빛의 얼굴에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내게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받아 들자 그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열린 문으로 어둡고 좁은, 안채로 들어가는 통로와 갑자기 나타나는 별다른 마당과, ㉕ 걸음을 옮길 때마다 투명한 맨발에 찰랑대며 문어 오르는 햇빛을 보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펼쳤다. 속에 든 것은 중국인들이 명절 때 먹는 세 가지 색의 물감을 들인 빵과, 용이 장식된 엄지손가락 만한 등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금이 가서 쓰지 않는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

▶S#04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산고(産苦)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나는 이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할 때처럼 몰래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한낮이어서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들이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차라리 죽여 줘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작한 **중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 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덥더러운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

▶S#05

* 독(瀉): 뱀, 가을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큰 나무나 강

* 해인초: 홍조류의 해조. 주로 회충약으로 먹으며, 석회의 접착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하였음.

* 초조(初潮): 여성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월경.

→ 줄거리는 작가가 아닌 평가원이 써 주는 것이다. 쓸데 없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3번씩 읽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 본문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 치옥이의 변화

치옥이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미장원에 맡겨진다. '자꾸 기어올라가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당겨 바지 허리 위로 드러나는 맨살을 가리며'라는 표현은 부모의 부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성장하고 있으나 주위 환경이 그것 완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 과거의 치옥이의 미용사가 될 것이라는 노오란 목소리로 말하던 꿈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 중국인 청년의 등장

사건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인물이다. 나중에 문항에서 주어진 해석을 보고 그 정도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소설은 일부분을 잘라내어 출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면만 보서는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에 맞게 문항을 출제할테니 말이다.^{^^}

→ 어머니의 출산과 초경

16학년도 9월 모의수능에 출제되었던 오정희의 「옛 물」에서도 출생의 이미지를 등장시켰는데, 이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소재이다.

출생은 기본적으로 축복받아야 마땅할 일이건만, '나'는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든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낀다. 아마도 현실의 부정적 상황이 동생의 출생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도 '초조'를 한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번째 문항의 <보기>에서처럼 미완의 성숙해 그친다 하더라도 말이다.

평가원의 지문 구성 의도 분석

평가원은 왜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나?

[주제]

1. 인물(특징)

어린 나(인물)의 특징은 부각되어 있지 않다.)

2. 갈등(좌절) ← [시대·사회]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현실 [빈곤과 전후의 황폐한 도시]

3. 태도(대응)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인 태도

[종락 이전과 이후의 연결]

— 종락 이전 : '탄가루'와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피폐한 현실

— 종락 이후 : 치옥에게 닥친 불행, 어머니의 출산과 나의 초조

→ 종락 전후의 연결 포인트 : 전후의 피폐한 현실과 그 속에서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은 탄생하고 아이들은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성

문항분석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 ③ 초점이 되는 화자를 다수 등장시켜 사회 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서술자의 주관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여, 현재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공간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여 전후의 어두운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 어린아이의 시선에 비친 현실의 모습을 독백조로 표현하여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치옥'의 말과 꿈을 회상하며, 현재 힘겨운 삶을 사는 '치옥'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⑤ ㉤: '그'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나'의 심리가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출제의 포인트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 문항은 문학개념어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출제되면, 구석탱이를 건드리지 않고 지문 전체를 지배하거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서술상 특징을 묻는다. 따라서 지문을 크게 보면서 편하게 답을 고르면 된다.

정답 해설

답 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서술자인 '나'는 '중국인 거리'에서 겪은 유년시절을 회상하며 '노오란 목소리', '노란빛의 회오리', '노란빛의 냄새' 등과 같은 주관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작품 밖의 서술자라면 3인칭 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서는 '나'가 등장하므로 1인칭 시점이다.
- ②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인 작품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나'의 회상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작품으로, 초점화자는 '나'이다. 초점이 되는 화자가 다수 등장하지 않는다.
- ④ 같은 시각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란히 제시하는 병렬적 구성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출제의 포인트 문맥적 의미의 파악

아주 잘 만든 문항이다. 아무 생각없이 풀면 깜빡 속아 넘어 갔다가, 문제를 틀리고 나서야 '아, 실수구나. 다음에는 정신 똑바로 차여야지.'라고 넘어갔다면 이는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습관이 바뀌어야 국어 점수도 달라진다.

문맥적 의미 문항은 항상 주변 글자를 따져야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 LITERALLY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느낌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정답 해설

답 ③

㉢ 밑줄의 바로 다음을 보면, 치옥이 하는 말은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낸 것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할머니가 할 말을 서술자가 가로채서 하는 말로서, 할머니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할머니는 전쟁이 나기 전 이복과 비교하여, 탄가루 때문에 빨래를 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전쟁 당시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모습을 '썩은 이빨처럼' 서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는 아버지의 부상으로 비극적 현실에 던져진 '치옥'을 보며, '나'는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라고 (가)에서 했던 '치옥'의 말을 생각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⑤ '나'는 중국인 청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나'의 심리가 그의 맨발에 '찰랑대며 물어 오르는 햇빛'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항분석

4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충’은 무질서나 상실, 전쟁의 잔재와 같이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해인초’의 냄새는 ‘나’에게 현재와 과거, 그리고 새로운 공간과 이전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노란빛’은 메스꺼움과 연관되는 색깔로, ‘나’가 겪은 도시의 무질서함과 이로 인한 불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종이 꾸러미’는 ‘나’가 앞으로 마주할 성장의 고통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어.
- ⑤ ‘종소리’는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이자, ‘나’가 시작할 새로운 삶과 성장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출제의 포인트 문맥적 의미의 파악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갈등 상황에서의 말하기에서 인물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 시험장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읽는 속도를 늦추고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정리를 해야지 헤매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이다.

정답 해설

답 ⑤

종소리를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나’는 어머니의 출산과 자신의 초조를 겪으며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LITERALLY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이 ‘종소리’에서 새로운 삶과 성장의 기쁨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회충은 회충약인 산토닌을 먹고 제거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 ②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약속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에서 알 수 있듯 해인초 냄새는 ‘나’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가 중국인 거리로 와서 처음 맡은 냄새로, 이전 공간과 새로운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도 볼 수 있다.
- ③ ‘노란빛’은 공복감과 산토닌, 해인초 냄새 등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연관된다. 이는 ‘나’가 처음 마주한 도시의 무질서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 ④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초조(初潮)’를 고려해볼 때, ‘종이꾸러미’는 ‘그’가, 앞으로 성장의 아픔을 겪을 ‘나’에게 주는 선물이자 위로라고 볼 수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인물이 세계와의 대립이나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은 자신과 주변의 여러 대상, 혹은 그 대상들의 다양한 존재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 한편 성장 과정에서 인물이 대립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대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완의 성장소설’로 남는 경우도 있다.

- ① ‘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 ②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 ‘나’가 여성의 존재 방식과 그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③ ‘어머니’의 출산에 직면하여 ‘나’가 ‘벽장 속에 숨어들어’ ‘낮잠’을 잔다는 점에서, ‘미완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④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끼며 ‘초조’를 경험하는 ‘나’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미완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⑤ 미장원에서 일하는 ‘치욕’의 모습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주체가 되어가는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출제의 포인트

현대 소설에서의 3점 <보기> 문항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 현대 소설에서의 <보기>는 일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열심히 <보기>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3요소, 즉 ① 인물(특징), ② 좌절(갈등), ③ 태도(반응)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보기> 독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기>를 독해해야 하고, 이 <보기>의 내용에 작품을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작품을 읽어 나가면 된다.

두 번째, 문항은 FACT CHECK에서 문제가 없다면 순서에 따라 MEANING에서는 ‘태도(반응)’을 묻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태도(반응)’에 집중해야 한다.

<주제의 3요소에 따른 <보기> 분석>

- ① 인물(특징) : 미성숙한 인물
- ② 좌절(갈등) : 세계와의 대립이나 내면적 갈등
- ③ 태도(반응) : 세계와의 대립이나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극복)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

정답 해설

답 ⑤

‘치욕이는 자꾸 기어올라가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당겨 바지 허리 위로 드러나는 맨살을 가리며’에서 치욕은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부모의 부재로 그 성장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주체가 되었다거나 이를 근거로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창백한 표정의 중국인 청년을 본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가 부르자 ‘끌리듯’ 언덕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는 ‘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나’를 드러내므로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나’는 ‘어머니’의 출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낀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존재 방식과, 그에 대한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나’는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이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벽장 속’과 ‘낮잠’이라는 도피처로 숨고 있으므로, ‘미완성형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④ ‘나’는 ‘초조’라는 생리적 현상을 겪고, 후에 갈등의 해소와 같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끝나므로 ‘미완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1. 제목이 주는 단서

(나)는 '추일서정'이다. '가을날의 정서를 노래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김광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대로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나 몰랐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작품을 읽어 보면 그네라는 중심 소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산도화'라는 중심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2. <보기> 확인

(가)의 이론이 <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론(<보기>)을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항목화하여 정리한 다음, 작품해석에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작품 해석이 어렵거나 애매한 지점이 있다면, <보기>가 제시해 주는 정도까지만 이해한다고 맘 먹으면 충분하다. 또는 작품을 <보기>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도 좋다. 이론을 통해서 두 작품이 모두 모더니즘 계열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야 한다.

☑ 주제의 4 CODE(세계를 자아화하는 방식)

1. 상황 → 태도
 2. 대상 → 태도
 3. 자아성찰
 4. 모더니즘
- 반복 / 변화 / 대비

(가)

개화기 이후 근대시를 창작하고자 했던 우리 시인들의 노력은 크게 **음악성** 지향과 **회화성** 지향의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소월 등 전자를 추구했던 시인들은 전통시가의 율격과 시상 전개방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것들에 변화를 줌으로써,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율격을 찾아내어 이를 작품에 구현하려 하였다.

반면 김광균 등 후자를 중시했던 시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의 핵심요소로 여겨졌던 운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대신,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 일상적 소재와 일상의 언어 사용 등 서구 이미지즘의 모토를 근대시 창작방법론으로 내세우는 한편,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한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박목월 등은 이 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근대적 율격과 명징한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갖춘 시가 근대적 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의 창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박목월은 행간 걸침 등 서구 시의 창작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음악성의 구현에 활용하는 한편, 시각적 심상의 구현을 위하여 시의 형태까지 활용하는 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이론은 독서 지문처럼 읽어라!

이론이 제시되면 독서 지문처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독해하면 된다. 음악성과 회화성이라는 이항대립구조로 가고 있다.

→ 김소월 등의 음악성을 추구했던 시인들

→ 김광균 등의 회화성을 추구했던 시인들

→ 박목월 등의 이 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자 했던 시인들

→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작

(나)가 김광균, (다)가 박목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론에 제시된 대로, 각각 회화성을 추구했던 시인, 회화성과 음악성 모두를 추구했던 시인이다. 제시된 작품도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을 선택했을 것이다.

(나)

낙엽(落葉)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紙幣)

㉠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急行車)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옥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風景)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작

(가)에 제시되었던 이론과 ‘김광균’이라는 작가에 주목한다면, 모더니즘 계열이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이미지 중심으로 그림을 감상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미지 이상의 내용은 이론(〈보기〉)에 제시된 만큼만 읽는다고 생각하자.

평가원의 작품 선정 의도 분석

이야기로 풀어 보는 DANDY한 분석 (feat. <보기>)

-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므로 이미지 중심으로 한 편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을 낙엽들이 지금은 쓸모가 없어 휴지 조각이 되었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떠올리게 하고, 전쟁의 폐허가 되었을 도룬(지명) 시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다. 길은 마치 넥타이를 풀어 놓은 것처럼 뻗어서 그 끝은 햇빛 속으로 사라진다. 들에는 기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가고 있다. 포플라 나무들이 서 있는 풍경 속에 공장 건물의 지붕은 타일이 떨어져 나가 흰 이빨처럼 보이고,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 그 위로는 셀로판지로 만든 것 같은 구름이 하나 지나간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길을 이 소리를 발로 차는 것 같은 기분으로 걸어가며, 황량한 생각에 돌팔매질을 해 보는데, 저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날아간다.

[작품의 CODE]

모더니즘

(대)
산은
㉠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 (가)의 이론을 통한 해석

작품의 내용도 단순하지만, (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음악성과 회화성을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특히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은 자력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보기>만큼만 읽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라. 그게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평가원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평가원의 작품 선정 의도 분석

이야기로 풀어 보는 DANDY한 분석 (feat. <보기>)

- 작품의 내용도 단순하지만, (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음악성과 회화성을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 구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보라색이 나는 돌로 된 산이다. 산도화가 두어 송이 피는데, 봄눈이 녹아 옥 같은 색깔로 흐르고, 이 물에 암사슴이 와서 발을 씻는다.

[작품의 CODE]

모더니즘

43.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촉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하여 표현할 정도로 회화성을 증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넥타이’, ‘포플라 나무’, ‘셀로판지’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볼 수 있군.
- ③ 직유, 은유, 활유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한 것은 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한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하기 위함이었어.
- ④ 특정한 음보율이나 음수율을 따르지 않는 산문체로 서술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음악성을 과감하게 포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화자의 감정표출보다는 대상의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서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를 창작방법론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군.

44. (가)를 바탕으로 (대)에 구현된 음악성과 회화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보랏빛’, ‘옥 같은’ 등 색깔을 환기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명징한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으므로 회화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② 각 연이 모두 자연스럽게 3음보로 읽힌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시가의 율격을 바탕으로 리듬감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③ 1~2연에서 화자의 외부, 3~4연에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전통적 시상 전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④ 2연 2행의 ‘송이’와 3행의 ‘송이’ 사이에 행 구분을 가한 데에서 서구 시의 창작 원리를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⑤ 1연은 삼각형, 3연은 역삼각형의 형태로 글자를 배열함으로써 각각 땅 위의 산과 물에 비친 산의 이미지를 실험적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므로 회화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출제의 포인트 이론을 통한 확장 적용

특히 현대시는 학생과 평가원이 반반씩 콜라보하는 파트이다. 제시된 이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정리해서 문항에 적용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①

촉각적 심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한 것이 아니라 촉각적 심상(‘발길로 차며’)으로 전이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에 ‘회화 지향성’을 추구했던 시인들이 “‘일상적 소재와 일상의 언어 사용’ 등 서구 이미지즘의 모토를 근대시 창작방법론으로 내세’웠다고 나와 있으며, ‘넥타이’, ‘담배’, ‘셀로판지’ 등은 일상적 소재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가)에서 ‘회화 지향성’을 중시했던 시인들이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한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활유가 사용된 예를 든 선지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특정한 음보율이나 음수율을 따르지 않고 산문체로 서술된 작품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호울로 황량(荒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고독한 반원(半圓)’ 등에서 보듯, (나)에 화자의 감정표출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화자의 감정표출보다는 대상의 감각적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출제의 포인트 이론을 통한 확장 적용

특히 현대시는 학생과 평가원이 반반씩 콜라보하는 파트이다. 제시된 이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정리해서 문항에 적용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③

(대)는 1연과 2연에서 배경을 제시한 후 3연과 4연에서 화자의 정회를 드러내고 있는, 이른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방식을 활용한 작품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 표출은 철저히 배제한 채, 그림을 그리듯 대상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게다가 (가)에서 음악성을 지향했던 시인들은 전통적 시상 전개방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변화를 주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 또한 선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를 보면, 박목월이 음악성을 지향하는 태도와 회화성을 지향하는 태도 각각의 이상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자 하였으며 ‘근대적 율격과 분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갖춘 시가 근대적 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의 창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박목월이 ‘보랏빛’ 등의 선명한 색채어를 활용한 것은 ‘회화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② 각 연이 모두 ‘산은 / 구강산 / 보랏빛 석산’과 같이 3음보로 읽히며, 3음보는 우리 전통시가의 율격 가운데 하나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한 행에 처리해야 자연스러운 ‘송이송이’에 행구분을 가하여 ‘송이/송이’로 표기한 것은 ‘행간 걸침’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에 박목월이 “‘행간 걸침’ 등 서구 시의 창작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음악성의 구현에 활용”하였다고 나와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대)의 형태를 보면, 1, 2, 4연은 직각삼각형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물’이 등장하는 3연은 역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에 박목월이 시각적 심상의 구현을 위하여 시의 형태까지 활용하는 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나와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문항분석

45. (나), (다)의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전란의 참상을 엿볼 수 있어.
- ② ㉡: 화자의 시선이 원경(遠景)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의식이 드러나 있어.
- ④ ㉣: 화자에게 특정한 기억을 환기해주는 구체적 공간이야.
- ⑤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신적 지향성을 보여주는군.

출제의 포인트 문맥적 의미 파악

주변 글자를 보면서 LITERALLY하게 의미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 해설

답 ②

들을 달리는 급행차가 뿜어내는 연기를 '조그만 담배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선이 원경(遠景)을 향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열차가 실제로 '조그만' 할 수는 없다.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맣다고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낙엽을 보며 '도론 시의 가을하늘'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다. 화자가 전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가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서일 뿐이다. '돌팔매'를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의식의 상징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 ④ '구강산'이 구체적 공간이라는 근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구강산'은 이 작품에서 화자에게 특정한 기억을 환기해주는 공간적 배경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목월 선생은 '구강산'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상상의 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 ⑤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 상태와 상관관계에 있는 외부의 대상에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시의 '암사슴'은 화자의 정서 상태와 상관관계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 그것이 화자의 정신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 연간 학습 계획 |

시기별	독서	문학	문법 · 화법 · 작문
기본 [12-2월] 겨울방학 (10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능마인드 확립		
	지문의 구성 원리와 문제의 출제 원리, 수능적으로 읽는 법	장르별 접근법 + 문학개념들	교과서 기본 개념 1회독 (출제의 POINT)
1등급 완성 [3-6월] 1학기 중간고사까지(5주) + 6월 평가원까지(6주)	GRIT + EBS + UNESCO		
	1. GRIT(고난도&신유형) 2. EBS를 부탁해[수능특강편] + 핫컬렉션 3. UNESCO(문화 유산급의 기출 자료) 4. 아침에 화·작 + 문법 3점 공략		
심화 & 총정리 [7-8월] 여름방학 (8주)	1. GRIT [심화편] + EBS를 부탁해 [수능완성편] + 문학 개념 매뉴얼 2. GRIT 15(화작 + 문법) 3. 매주 2회분의 모의고사(과제) : 김상훈 모의고사 + 이감 모의고사 4. UNESCO(문화 유산급의 기출 자료) 5. 주간 매일 학습지 (하루 1시간 1등급 습관 + 이감 간쓸개)		
FINAL [9-11월] 실전 + 기본 (10주)	1. 매주 2회 모의고사(하나는 현장, 하나는 과제) : 김상훈 모의고사 + 이감 모의고사 2. 입실 5분 전(핵심 체크 10가지 POINT, 평가원 역사로부터 배운다) 3. 문법·EBS 핫 컬렉션(최종 적중 자료) 4. GRIT - FINISHING TOUCH (현장 전용, 신유형 최고난도 완성) 5. 수능 만점을 위한 최종 개인별 약점 CHECK		

| 2020학년도 출강 학원 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 다원교육 (02-3454-1162) · 시대인재 (02-552-2373) · 대찬학원(분당) (031-712-5711)				신설 시대인재 9:30 - 12:30 김상훈 전용관	시대인재 9:30 - 12:30 김상훈 전용관	다원교육 9:30 - 12:30 SME타워 3층
오후						시대인재 2:00 - 5:00 김상훈 전용관	시대인재 2:00 - 5:00 김상훈 전용관
저녁	시대인재 6:30 - 9:30 김상훈 전용관	신설 다원교육 6:30 - 9:30 SME타워 3층	시대인재 6:30 - 9:30 김상훈 전용관		대찬학원 (분당) 현장 & LIVE 7:00 - 10:00	시대인재 6:30 - 9:30 김상훈 전용관	시대인재 6:30 - 9:30 김상훈 전용관

☎ 자세한 사항은 각 학원 상담실이나 김상훈T 연구실 ★010-8319-7117★로 문의바랍니다^^